EAST ASIAN 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UG 14 198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印尼開發계획 한국 積極참여

全대통령·수하르토 17개항 共同聲明 발표

通商長官회담 定期개최

수하르토 訪韓수락

南北韓 유엔同時加入 지지

原油·石炭·農漁業개발등 技術·人力협조

2重課稅 방지·投資保證협정 早期체결

【자카르타27日=尹國炳특파원】 全斗煥 대통령과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7일하오5시(한국시간·이하같음) 양국頂上會議를 決算하는 공동성명을 발표,『양국이위치한 각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상호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 아시아및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히고『양국영도자는 東北亞및 東南亞의 발전에 기여할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2·3·5面

17개項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은 또『全대통령은 韓半島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은 1·12제의와 6·5제의대로 南北韓최고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을 갖는데 있음을강조했다』고밝히고『수하르토 대통령은 한반도문제가 南北韓자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직접회담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이 자카르타에서 발리로 향발하기에 앞서 발표된 이 성명은 이어『양국 대통령은 유엔및餘他국제회의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수하르토 대통령은 유엔헌장의 보편성원칙에 입각한 南北韓 유엔가입의 실현을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양국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캄보디아의 현사태에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캄보디아문제가 유엔총회의 관계결의에 의거하여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경제협력문제와 관련『양국 대통령은 양국간의 경제적 관계가 상호補完的이며 이러한 관계의 발전이 양국에 상호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일층확대하고 多邊化할것에 합의했다』고 말하고『또한 양국간의 通商장관회담을 定期的으로 개최하고 양국의 산업정책에관하여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현재 진행중인 인도네시아 제3차 5개년개발계획의 각종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했으며 全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人的자원개발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해 한국정부가 협력하고 지원할것을 다짐했다고 이성명은 밝혔다.

이 성명은 특히『양국 대통령은 資源협력공동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재확인하고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原油의 공동개발 사업을 촉진시킬것과 석탄개발에있어 상호협력하는등 에너지분야에서 협력을 가일층 촉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 어업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한협력을 유지하고 민간합작투자를 장려키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대통령은 농업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 ……

공동성명은 이밖에 양국간의 二重課稅防止協定및 투자보증협정의 조기체결을 위한 교섭개시에 합의했다 …… 양국간의 문화교류와 이해를 증진해나갈 필요성을 …… 全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兩國영도자간의 두터운 우의와 상호신뢰를 재확인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내외는 수하르토 대통령내외가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했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초청을 기꺼이 수락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기를 희망했다고 이성명은 덧붙였다.

◇ 全斗煥 대통령이 25일낮 숙소인 영빈관에서 韓·印尼 경제각료들을 위해 午餐을 베풀기 앞서 印尼측 각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南侵할땐 北의施設 完破"

6·5提議 수락하면 「高麗연방」討議"

全대통령 會見

【자카르타27日=尹國炳특파원】 全斗煥 대통령은 26일 『北韓당국은 우리의 1·12및 6·5제의에 대해 아직까지 긍정적반응을 보이고있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인내심을 갖고 우리의 平和統一정책을 추구해나갈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만일 北韓이 오판해서 다시 南侵한다면 우리는 北韓의 중요한 모든 시설을 완전히 파멸시킬 막강한 戰力을 갖추고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5시30분부터 迎賓館2층 회견실에서 42분동안 가진 내외기자회견을통해 이같이 말하고 『北韓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高麗聯邦制는 기만에 불과하고 논리적·현실적으로도 맞지않지만 金日成이 나의제의를 받아들여 나를만나준다면 高麗聯邦制에 대해서도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이미 밝힌바있다』고 상기시켰다.

印尼, 한국戰闘艦등 도입키로

한편 周永福국방장관은 26일 상오11시 인도네시아국방성에서 가진 유스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두나라 軍部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하기위해 軍고위인사와 軍事유학생및 각종 사절단의 교환방문을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인도네시아측은 인도네시아 戰力증강에 필요한 전투함을 포함한 각종장비를 한국에서 도입할것과 인도네시아 방위산업발전에 필요한 韓·인도네시아간의 협력증진을 희망했다.

韓國측은 이에대해 『한국의 기술과 능력의 범위내에서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발리島도착, 내일 말聯향발

全斗煥 대통령은 2泊3일 뒤 29일낮 아세안의 두번째 巡訪國인 말레이지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떠날 예정이다.

자카르타 공식체류일정을 마치고 27일 하오 발리州의 덴파사에도착, 週末을 보낸다.

全大統領 아세안巡訪日程

◇28일(한국시간)
▲상오=골프(베두갈골프장)▲하오=클럽하우스오찬▲〃=배착댐스관람▲〃=발리州지사만찬(별장)

◇29일
▲하오=발리출발▲〃=말레이지아首都쿠알라룸푸르着▲〃=환영행사(국회의사당광장)▲〃=國王내외예방(왕궁 접견실)▲〃=首相부처 접견(영빈관)▲〃=國王부처주최 만찬(王宮)

韓·印尼 공동성명

<內容>

▲양국 대통령은 東北아시아와 東南아시아를 중심으로한 아시아및 태평양지역정세를 검토하고, 양국이 위치한 각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 아시아및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불가결하다는점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全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정세를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동지역의 평화 안정유지와 韓半島에서의 전쟁재발방지를위해 계속 노력하여 왔음을 밝혔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全대통령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찬양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全대통령에게 東南아시아 정세와함께, 아세안이 주창한『동남아시아평화, 자유, 중립지대』제안의 취지에따라 인도네시아가 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위해 취한 조치들을 설명하였으며, 全대통령은 동아세안의 제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영도자는 東北亞및 東南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할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全대통령은 아세안이 지역내 협력을 증진, 강화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다대한 업적을 이룩하고 성공적이며 실효적인 지역연합체로 발전하였음을 찬양하였다.

▲全대통령은 韓半島정세를 살피면서 한반도의 평화적통일달성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가 경주해온 긴장완화및 평화정착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全대통령은 특히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은 1·12제의와 6·5제의대로 南北韓최고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을 갖는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全대통령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문제가 南北韓간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직접회담을 지지하였다.

▲全대통령은 유엔, 非同盟회의및 여타 국제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여준데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양국 대통령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全대통령은 南北韓의 유엔가입이 한국의 평화통일달성시까지의 잠정조치로서 긴장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될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유엔헌장의 보편성원칙에 입각한 남북한유엔가입의 실현을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의 경제적관계가 상호補完的이며, 이러한 관계의 발전이 양국에 상호이익이 된다는점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인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일층확대하고 多邊化할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양국간의 통상장관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양국의 산업정책에 관하여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현재 진행중인 인도네시아 제3차 5개년개발계획의 개요를 설명하고 동 개발계획의 각종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언명하였다. 全대통령은 인도네시아정부의 경제, 사회개발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개발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해 한국정부가 협력하고 지원할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全대통령은 기능인력, 특히 건설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기술훈련 제공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全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할 것임을 밝혔다.

양 영도자는 이러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한·인니 민간 경제협력위원회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양 영도자는 자원개발, 건설사업, 어업, 농업개발, 기술이전, 제조및 가공업의 합작투자등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의 폭을 확대할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全대통령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개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협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자원 협력공동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용을 재확인하고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原油의 공동개발 사업을 촉진시킬것과 석탄개발에 있어 상호 협력할것에 합의하였다.

양국 영도자는 어업분야에서도 기술, 훈련, 정보교환등 긴밀한 협력과 동 분야에서의 민간 합작 투자를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농업개발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확대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全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정신을 설명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수행을 높이 평가하였다. 全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농업개발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사회개발을 위한 한국의 투자가 증대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간의 二重課稅방지協定및 투자보장협정의 조기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프랑스朝野, 對美 크게反撥

共産黨入閣우려에 "內政干涉" 비난도

【생·브리옹(프랑스)26日AP合同】 …… 프랑스 공산당 …… 미국측의 우려표명을 「프랑스 내정문제에대한 공공연한 간섭」이라고 강조하고 ……

蘇는 美佛離間속셈

【모스크바26日AP合同】 소련은 26일 프랑스 공산당원의 ……

社告

北歐 제1의 和音

타피올라合唱團 초청공연

7월8일 저녁7시반 世宗文化會館대강당

회원권
(S)6,000원
(A)4,000원
(B)2,000원
(C)1,000원

예매처
○한국일보사업부 ☎1472
○대한음악사 ☎0577
○세고비아기타 ☎6161
○세종문화회관 ☎2721
○종로서적 ☎2331
○코스모스백화점 ☎0311

한국일보社주최·文公部후원

地平線

…… 여름방학을 앞둔 학원에는 …… 학생들의 해외여행이 많아 …… 여러대학이 외국대학과 연수계약을 맺고 학생들을 내보낸다. 이런 경우 일부학생의 연수 비용은 학교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학생은 약2백만원의 自費를 써야 한다. 민간단체가 알선하는 경우도 4주간의 연수비용이 2천4백달러(약 1백70만원). 여기 용돈과 「볼펜값」을 합치면, 현재 사립대학 등록금의 2년치 꼴은 된다. ▼해외연수의 목적지가 대부분 미국일 것이란 짐작과 함께, 이맘때 그나라 신문지면을 넓게 잘 던 광고가 생각난다. 이른바 權威紙라면, 각대학의 서머·스쿨 광고가, 몇면씩이나 실리던 것이다. 미국대학의 여름學期, 또 「열려진 대학」으로서의 서머·스쿨은, 배우고자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참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이 미국대학의 經營對策이란 일면이 없는 것이 아니란 인상을준다. ▼문제는, 서머·스쿨을 찾아갈 대학생 연수가 무엇을 얻어 오느냐에 달린 것이다. 이들이 해외연수지만, 4주간 공부로 語學 …… 우리네·歐美의 …… 두고 보아야 할것같다.

社會漫評

"저쪽에 「강타」할곳이 많습니다요…"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58
은 : 온스당 US 10.08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효과!
(416) 533·2361

여러분의 삼복식품

한번 와 보세요.
또 오시게 됩니다.
왜냐구요?
삼복식품점은
첫째 : 친절하고
둘째 : 정직하고
세째 : 물건이 싱싱하니까요
그리고 만족한 쇼핑을 하고 돌아가시게 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여름철 식탁준비는 친절하고 정직한
삼복식품점으로……

①	물오징어 BOX당	$12.95
②	조기(굴비용) BOX당	55.50
③	물미역 BOX당	44.50
④	미역줄기 BOX당	44.50
⑤	당 면 BOX당	120.00
⑥	냉 면 BOX당	45.80
⑦	이면수 1 lb 당	2.95(½price)
⑧	삼 치 1 lb 당	2.25(½price)
⑨	한국산고추가루 1 lb 당	3.45
⑩	한국산동태 1 lb 당	1.25

삼 복 식 품

2437 FINCH AVE. W. 전화 : 743－8270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住宅景氣 되살아 날것인가…

6·26浮揚조치…두主務長官에게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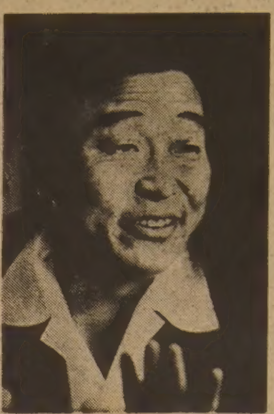
주택경기를 일깨워보려고 활성화대책이 나왔다. 지난 78년 過熱되어 뜨거워졌던 不動産붐을 잡기위해 정부가 8·8억제조치를 취한지 3년— 이제는 너무 깊숙이 침잠해버린 不動産경기를 어느정도 부양해보겠다고 이번대책을 마련한것. 주택경기란 國內景氣를 되살리는데 가장중요한 산업이다. 집을 한채짓는데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세워진후에 들여놓는 세간들이며 勞動力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한 파급효과를 갖고있다. 이런 景氣浮揚의 직효약이 그러나 잘못 쓰면 비상이다. 그렇지않아도 곳곳에 투기의 조짐이 만연한중에 不動産에 불붙지르면 시중의 모든 자금이 땅에 잠기게된다. 아파트의경우도 목이좋거나 聲價있는 회사에서 짓는다하면 집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몰려 독점해 버리고 더 오를때만 기다린다. 없는 사람은 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정책적으로도 한탕主義만팽배해진다. 이런저런 限界내에서 마련된 이번 대책이 그러나 너무 조심한 나머지 과연 의도대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것인가에 의문을 나타내는 전문가들도있다. 이번 6·26조치를 직접 成案한 두 주무장관에게 들어본다. 【편집자註】

金周南 건설부장관

實需要者거래 숨통틀듯

景氣회복위해 서둘경우 物價에 악영향

時期的으로 늦은감 있으나 投機막아야



◇양도세 완화등으로 실수요자거래는 활발해질것이라는 金周南 건설부장관.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주택및 부동산거래가 침체를 거듭하고있어 6·26주택활성화 조치를 취한것으로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6·26조치의 배경과 경위부터 먼저 말씀해주시지요.

▲金=최근의 경기예고 지표와 산업생산지수를 보면 약간 회복세를 나타내고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78년에 단행된 8·8부동산투기억제조치는 당시의 과열된 부동산경기를 진정시킨바 있지만 그동안 부동산경기를 너무 침체시킨 요인으로 작용해 왔어요. 올들어 5월까지의 전국건축허가면적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5%나 줄어져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몇차례 양도소득세의 실행세를 인하, 정부공사의 조기발주등 건축활성화방안을 시행했지만 아직 미진한 상태여서 다시 완화조치를 취했습니다.

—6·26조치에 따른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부동산경기가 제대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까?

▲金=실수요자 거래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지역— 부동산투기 억제지역의 해제는 주택가격의 오름세를 상당히 견제하게될 것으로 봅니다. 이론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완화된만큼 땅값, 주택값이 떨어져야 합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떨어지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땅값이 안정되어 집값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되면 실수요자들의 구입의욕을 자극, 실수요거래가 활기를 되찾고 미분양주택의 처분도 촉진될것입니다.

—부동산전문가들의 애기는 1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면세조치, 아파트3년이내 재당첨금지조치등 근본적인것이 풀려야 주택경기가 되살아날것이라고 보는데?

▲金=이번조치로 1가구2주택의 경우 세금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물가상승을 공제하는 특별공제가 15%로 늘어났으므로 5년만 보유하다 집을 팔더라도 75%까지 공제받을수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또 양도소득세의 실행세율이 최하15%(3천만원이하)니까 이제는 세금부담이 큰문제가 안돼요. 아주 미미하다고 볼수있죠. 아파트 3년이내 재당첨금지는 1차분양때만 적용토록 되어있고 2차분양(1차분양미달시)부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풀린셈이지요.

—이번조치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투기억제 지역의 해제입니다만 78년이후 부동산거래가 워낙 침체되어 있으니까 투기억제 지역의 해제는 당연한것일뿐 부동산경기부양책은 되지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양도 소득세의 특별공제도 10%에서 15%로 인상했다고하나 최근의 물가상승추세를보면 일종 타당한 현실화조치일뿐이어서 활성화조치의 알맹이가 없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미흡하다는 얘긴데.

▲金=제한적인 조치인것만은 사실이죠.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을위한 거래를 조금이라도 보장해주려니까 제한적인 조치가불가피했어요.

—지난주에 서울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상도동의 대림아파트분양과 住公의 果川아파트분양등에는 경쟁이 심해 아직도 부동산투기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신용있는 업체가 위치 좋은곳에 짓는 중산층용아파트에는 투기가 계속 일어나는셈이죠. 이런판국에단행된 6·26주택경기활성화조치는 여유있는 중산층의 투자를 돕기위한것일뿐 돈없는 실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이 없을것이라고…。

▲金=그런애기, 주장이 나올수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대로 이번조치가전반적인 집값·땅값상승의 견제역할을하게되고 그효과가 파급되면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것으로 보고있어요.

—이번조치가 시기적으로 늦어 시중의 부동자금을 주택자금으로 흡수하기 어려울것이라는 전망도있는데?

▲金=정부내서도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있었으나 주택이란 다른소비상품과달리 신중한 결정을 내린후에거래가되는것이므로 시기에 큰상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중의 부동자금은 투기를 노려 움직이는것이므로 오히려 주택·부동산투자로 몰려오는것을 경계해야합니다.

여유있는 중산층이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주택경기가 일어날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투기를 목적으로한것이어서 바람직한게 아닙니다. 투기가 다시 일어나면 실수요자나 국민경제에 해독을 끼칠뿐아니까 그런일은 사전에 막아야지요.

—주택난이 심각한것은 집값이 소득에비해 워낙비싸기때문 아닙니까? 말하자면 실수요자라고할 무주택서민층은 주택구입능력이 없기때문에 주택난이더욱심해지는것인데 이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다시지을 계획은없읍니까?

▲金=사실은 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는게 이상적이죠. 그러나 재정형편때

特定投機지역 해제로 價格·去來 活氣기대

문에 자금을 빨리회전시켜야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임대주택을1~3년내에 다시 분양하게되고 서민들에게는 이자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빚었어요. 지난72년부터 80년까지 6만5천세대의 임대주택을 지었다가 별효과가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부터는 15평이하의 소규모주택을 중점적으로 지어주택값의 절반은 융자, 절반은 자기부담으로해서 내집을구입토록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지요.

—6·26조치는 단순한 주택·부동산경기의 부양책으로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노린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하반기경제운용을 위한 부수적인 보완조치도 정부내서 거론되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는데?

▲金=올들어 회복기에 있는 우리경제의 상황은지난74년의 회복기와 비교해볼때 여러가지가 달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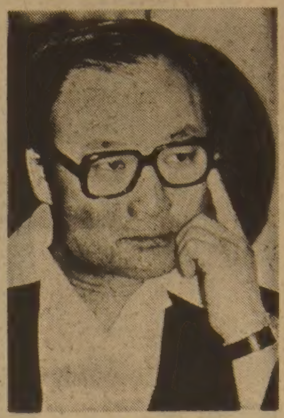
74년에는 내수를 발판으로한 주택경기에 힘입어 회복되었어요. 그때는 근로자소득과 건축활동이 모두 늘어났읍니다. 그러나 올해는 근로자실질임금이 줄고 건축면적도 감소추세를 보이는데다 수출주도에의해 경기가 회복단계에 들어서고있어요. 현재입장으로서는 경기회복을위해 조급히서두를경우 물가·임금·국제수지의 악화등 부작용이 우려되고있으므로 최근의 회복기미를 자연스럽게 보완해주자는뜻에서 6·26조치를 취한것입니다. 추가적인 조치는 없읍니다. 【朴仁浩기자】

李承潤 재무부장관

稅制완화로 附帶費덜어

고용·所得創出효과커 관련産業수요유발

無住宅해소보다 침체된景氣촉진에 重點



◇주택경기 부양을위해 세제상으론 모든지원을 해줬다는 李承潤재무부장관.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셨는데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기대만큼 회복 되지않고 있는 마당에 유독 주택산업을 경기부양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李장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산업이 전반적인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침체국면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국내경기를 주택산업을통해 활성화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주택산업은 수입수요를 유발하지 않기때문에 국제수지에 영향을 주지않을뿐 아니라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며 각종 內需산업에도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현재와같은 국내경제여건아래서는 주택산업육성이 가장 적절한 경기부양책이라 할수 있겠지요.

—이번 6·26부양책을 보면 거의 稅制완화에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세금만 내려주면 주택경기는 일어난다고 보시는지…。

▲李장관=물론 주택경기가 세금과만 관련되어있는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경기동향이라든지 국민의 소비성향이나 소득구조등 여러가지 요인에의해주택경기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현재와같이 주택건설이나 거래가부진한 주요원인중의 하나로는 家口소득수준이 주택가격상승세를 못따라가는 현상을 지적할수 있읍니다. 최근 10년간 주택가격과 도시家口소득의 변천상황을 보면 지난70년을 100으로했을때 77년의 도시가구소득은 536, 주택가격수준은 464입니다. 다시말해 77년까지만도 소득이 주택가격상승을 앞서있었읍니다. 그러나 77~78년의 부동산과열투기가 지나자 이현상이 역전되었읍니다. 78년의 경우 가구소득이 698인데 비해 주택가격수준은 806으로 높아졌고 79년엔 가구소득 770에 주택가격은 1,001로 주택가격상승세가 소득향상률을 30%나 앞서가고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득이 주택가격상승을 못좇아가 주택수요부족의 원인이되고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어 집이 팔리지 않기도하겠지만 이런저런 원인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주택경기는 예상보다 부진하다는게 정부의 결론인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범위에서 실수요거래위주의 부양책을 생각하다보니 稅制를 완화해서 부동산거래에따른 부대경비를 덜어주는방법을 채택한것이지요.

이번엔 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마춰졌고 국세청이 고시한특정지역을 전면해제하는 것도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또한 세제상으로 지원할만한것은 모두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이번 부양책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엔 별도움이없고 여유있는 중산층의 투기에만 유리하게됐다는 애기가있는데…。

▲李장관=크게 보아 주택정책은 2가지측면을 갖고있읍니다. 주택산업지원을통한 경기부양측면과 무주택자에게 값싼 집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측면이지요. 그러나 이번 부양책은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경기를 부양해보겠다는 경기부양측면만이 강조된 것이기때문에 무주택자들로서는 그런얘기가 나올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이번부양책과는 별도로 집값안정을 위해 택지를 값싸게 공급하고 내집을 마련하려는 국민들에게는 금융자금을 대주는 시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서도 주택자금은 국내여신한도 운영에있어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확대공급할 생각이며 아파트나 연립주택가운데 새로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것은 3백50만원~4백만원 정도의 융자를 해줄 작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무주택자로서 은행의 복지부금에 가입않고서는 이런 집들을 사는 사람은 그만큼 이번조치의 혜택을 받는 셈이지요.

—1가구2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 감면는 民正黨이 공약한것인데도 반영이안되었는데.

▲李장관=1가구2주택에대해 면세를 하자는것은 양도소득세를 부인하는것이나 다름없읍니다. 아직도 무주택자가 수두룩하고 저소득 근로자들도 세금을내는데, 예를들어 이미집이 있는사람이 돈이있다고 딴집을 5천만원에 사서 7천만원에 팔아 2천만원이나 남겼는데도 주택경기부양한다고 세금을 안물려야 되겠읍니까. 이는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부동산거래에따른 자금출처조사를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李장관=과거에보면부동산거래를 하면 으레 세무서에서 출두명령을 내려 자금출처를 대라고했는데 이런것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있는사람 이재산분산을위해 부녀자나 미성년자 이름으로 집을사든다든지하는경우다시말해서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이있는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도록하겠읍니다.

—주택업자들은 空家처분을위한 자금지원은 물론 택지의 염가구입을위한 배려나 각종 규제철폐등 화끈한 정책을 바라고있던데 비하면 미흡하다는 주장들입니다.

▲李장관=우리경제정책의 기본은 어떻게하면 국제수지를 방어하면서 물가도 안정시키느냐에 두어지고있읍니다. 전처럼 안정되어가는 경제구조를 흐트릴수는 없는것입니다.

주택건설업자들이 지난78년과 같은 호황기때의부동산경기를 모델로삼아 이를 다시 기대한다면 이는 過慾이라고 할수밖에 없읍

무주택자도 있는데 1家口2住宅 면세는안될말

니다.

—이번부양책으로 다시 투기가 일어난다면 결국집값만 높여놔 무주택자의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할텐데.

▲李장관=현재 로서는 물가도 어느정도 안정된데다 기업이나 일반인들의부동산투기에대한 자세나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읍니다. 기업들도 9·27기업체질강화시책등에따라 여유자금이 있으면 기업재무구조에 써야할 형편이어서 투기에까지 손댈 여력이없을겁니다. 또한여유자금을가진 개인들도 부동산붐을기대하겠지만 한편으론 증권이나 어음중개실을 통한 고율의 회사어음매입등 투자대상이 다변화되어 있는데다 집중투자를해서는 위험하다는 경험들을 했기때문에 예전과같은 투기에는 끼어들지 않을겁니다. 따라서 78년과같은투기는 기대할수 없지요. 주택경기 부양책을 투기부양책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같은 투기가 일어난다면 정부로서도 좌시하지 않을겁니다.

—이번 부양책으로 어느정도 효과를 기대하시는가?

▲李장관=앞에도 말했지만 稅制면에서도 할수있는선까지는 모두 풀어줬으며 현경제여건아래서의 가능한 수단은 거의반영했기때문에 주택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이로인한 다른산업분야에의 파급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경기라는것이 급속히 개선되는것은 그만큼 위험부담도 안고있는 것입니다. 산이 급경사지면 반드시 낭떠러지가있듯이 문제가 도사리고 있게마련입니다. 따라서 경기회복도 서서히, 그리고 건실하게이뤄져야 합니다. 【[illegible]相憲기자】

全斗煥대통령 印尼방문 決算

「6·5提議」정당성 確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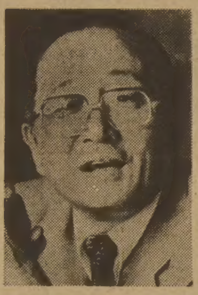
非同盟 외교경쟁서 北傀압도 誇示

資源과 技術의 協力…공동成長 지향

對談

成永肅 (外交安保연구위원·前印尼大使)

朴熊緖 (國際經濟硏究院연구위원·經博)



—全斗煥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決算集約하는 韓·印尼공동성명이 발표됐읍니다. 이번 聲明의 의의와함께 주요골자를 풀이해주실까요.

▲成永肅대사=크게 정치·경제분야로 나눠 생각할수있겠읍니다만 우선 政治분야에 있어서 全대통령의 1·12제의와 6·5제의에 대한 수하르토 대통령의 「謝意」와 「支持」가 분명하게 표명된 점입니다. 이번 聲明의 제8항을보면 수하르토 대통령은 한국側의 1·12및 6·5제의와 관련, 「한반도 문제가 南北韓간의 對話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한다는 印尼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직접회담을 지지했다」로 표현돼있읍니다. 南北韓공동수교국인 印尼입장을 염두에 둘때 1·12및 6·5제의에 대해 수하르토 대통령으로부터 명백한 「謝意」와 「지지」가 나왔다는 것은 중대한 성과로 풀이 됩니다.

수하르토 대통령이 南北韓동시유엔가입을 위한 한국側노력에 지지를 표한 점은 印尼가 非同盟 창설멤버이자 아시아지역의 非同盟旗手라는 점을감안할때 共同聲明에 으레 장식적으로 揷入된 항목만으로 看過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유엔문제는 유엔總會를 떠나 非同盟회의로 「場」을 옮겼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읍니다.

▲朴熊緖위원=양국이 經濟분야에서 거둔 성과는 우선 「에너지 資源의 안정적공급과 개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協力」보장입니다. 또 이에대해 全대통령이 「印尼개발사업에대한 한국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겠다는 호意를 보인점은 결국 印尼측의 무진장한 資源과 한국側의 축적된 기술의 상호交流를 뜻합니다.

또한 양국의 경제협력을 더욱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위해 年例 통상장관회의에 합의하는한편 무역과 경제협력의 多邊化, 그리고 양국의 산업정책에 관해 공동연구 사업등을 벌이기로한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수있지요. 이밖에도 한국이 건설분야의 人力양성을위한 기술원조제공의뜻을 밝히고 對印尼개발사업의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위한 양국의 民間經協위원회 역할에 중요성을 부여하기로한것등은 결국 한마디로 한국이 印尼를통한 對아세안 진출을 확고히한것이라고 볼수있지요.

—이번 聲明과 관련, 全대통령의 印尼방문이 갖는 의의는。

▲成대사=인도네시아는 아세안5개국의 지도국가이자 資源보유나 國力면에서도 세계 유수의 擴大國에 속합니다. 全대통령의 이번 巡訪역시 유스프 인도네시아국방상이 지난3월 경축사절단으로 來韓당시 수하르토 대통령의 초청장을 전달한것이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가 말하자면 이번 巡訪의 실질적인 호스트國이랄수 있읍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대사를 역임했대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만큼 우리와 가까운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또 아세안지도자가운데 수하르토 대통령만큼 한국사정에 精通한 국가원수는 드물다고 말할수 있읍니다. 따라서 全대통령의 印尼방문은 두나라사이뿐만 아니라 양국원수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더욱 높이는데 일차적으로 기능한 것으로 봅니다.

▲朴위원=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중심국가라는데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첫째 인구와 영토면에서 아세안 제일이고 아세안 5개국의 經濟成長을 뒷받침하는 資源보유면에서 그러합니다. 國防면에서 볼때 아세안5개국은 유사점이 없다고 하겠읍니다만 아세안擴大外相회의에서도 여러차례 나타났듯이 공산권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야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읍니다. 이 國防의 주도권을 쥔 나라도 인도네시아입니다. 또 아세안을 영원한 中立지대로 만드는데도 非同盟 세력의 창설멤버인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외교적이니셔티브도 쥐고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번 聲明을 통해 기대가능한 協力증진幅은?

▲朴위원=지난한햇동안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3억6천5백만달러 상당을 수출했고 그곳으로부터의 수입량은 4억8천5백만달러에 이르고 있읍니다. 우리쪽에서 볼때 1억2천만달러의 入超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지난 26일의 韓·인도네시아 頂上회담은 양국과 양국원수간의 친분을 高揚시키는 이외에 이러한 交易의 幅을 줄이고 交易量을 확대하는등 실질적인 협력·동반관계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지금까지 低水準 또는 불균형관계에 놓인 양국교역관계를 확대균형의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관망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와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資源보유국으로 같은 자원보유국인 中共의 기능을 代替할 수있는 막강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장기적인 경제補完을 통해 공동파트너로 성장할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힘써야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頂上회담은 큰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成대사=이번 頂上회담은 인도네시아로하여금우리에게▲資源공급▲고급건설및 상품수출시장제공 ▲자본주출과 기술수출의 추가확보를 보장했다는 의미에서 큰기대치를 던집니다. 한例로 건설분야에 있어서도 「포스트中東」(中東이후)의 공백을 東南亞시장에서 찾어야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인도네시아의 建設受注야말로 그나라의 경제개발계획과 관련, 우리의 일차적 관심거리가 아닐수없읍니다.

—인도네시아를 보는 주변 강대국들, 예컨대 美·蘇·中共·日本등의 視角은?

▲成대사=일본은 아세안擴大外相회의의 회원국이며 아세안개발투자에 깊이 관련돼있읍니다. 예컨대 77년 콸라룸푸르의 外相회의에서 泰國의 요소공장이나싱가포르의 디젤엔진공장건립등을 위해 선뜻 10억달러를 援助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았읍니까。 일본입장에서 볼때 인도네시아는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며 최대규모의 자원을 제공하고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러나 일본이 경제협력방식의 合作을 표방하되 과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 아시아開途國의 발전을 위해 경제大國답게 좀더 의연하고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줄것을 촉구하고 있읍니다。

中共과 印尼관계는 65년 印尼內 공산세력의 쿠데타이후 지극히 악화되어 67년10월 양국외교관이 상호철수했으며 지금까지도 외교적凍結상태에 놓여있읍니다。 인도네시아안에사는 4백만의 華僑들은 中國語교육이 금지되고 있으며 中國신문도 통제를 당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냉랭한 관계에 놓여있읍니다。

▲朴위원=소련은 어떻게 해서든지 印尼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위해 血眼이 돼있읍니다。 공산越南을 설득시켜 인도네시아에 대해 되도록이면 非敵對的입장을 취하도록 종용하는가하면 말라카해협에의 진출을위해 싱가포르한테는 안되겠다고 여긴 탓인지 인도네시아를 타키트로삼고 계속 침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읍니다。

미국은 이나라와 큰 정치적인 관계에 놓여있지는 않으나 일본과함께 아세안의 安保的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쏟고있읍니다。 아세안5개국은, 따라서 강대국들로부터 열렬한 求愛를 받고있는 여자의 입장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安保를 이유로 들고있는 카우보이(美)의 프리포즈가 제일 열렬한 편이지요(웃음)。

▲成대사=소련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경계심은 무척 큰 편입니다。 75년 印支3국이 공산화된이후부터 反蘇에 모가 여러차례 벌어졌어요。

▲朴위원=이번 頂上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인 接近(패키지·어프로치)이 커지리라 봅니다。 中東진출에서 거둔 기술과정보를 재정비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진출이 커질듯해요。 예컨대 프로젝트수출을 따내는 과정에서 보다 완벽한 진출을 보장하기위해 플랜트건립에 부설하고 건립을 병행하는등 규모의 幅을 다변화 할것입니다。

▲成대사=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새마을운동에 관해 소상히 알고있읍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이상으로 한국의 경제개발과 기술에 대해 정통합니다。

의 총수입의 반을 차지하는 중간소비재, 예컨대 화공품, 油化學품목, 의약품등이 販路를 넓히는한편 철강, 기계류, 수송기기등 자본재의 수출도 아울러 촉진하고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세안5개국의 공통점이기도한 重化學공업상품의 수출에 전력해야할것 같습니다。

▲成대사=외무부에서도 과거 몇차례 그 작업을 서두른바 있읍니다만 큰 진전이 드는것도 아닙니다。

으로보며 이런 多邊的인 수출방안은 우리실정에 비추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이나라의 수입총액을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1백억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내역별로는 소비재가 14%, 중간소비재 46·7%, 나머지 40%가 자본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들

니다。 기술적면에서 한국의 지위는 일본다음으로 알려져있어요。 공동성명대로 印尼자원과 우리의 기술교류는 예상대로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나 일면에서 일본과비교되지 않을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술은 質이 나은편입니다。 따라서이번韓·印尼정상회담을계기로 이나라에 대한 우리의 경제·기술진출은 自省할수있는 기회를 가져야할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업체로 가장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것은 「味元」을 들수가 있읍니다。 공장이 위치한 수라바야지역에 종업원을위한 학교도 설립했고 공장내에 새마을사업을 함께 벌이는등 그 어떤이 뒤떨어질만 합니다。 그러나그곳에 진출한 우리업체가 무엇보다도 유념해야할사항은 『지구기전에뿌려야 한다』는 의식구조입니다。

▲朴위원=61년 일본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벌인 해외경제자금(OECF)이 좋은 例입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의 현재입장보다도 훨씬 불리한 입장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해외원조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거두기전에 뿌려야 한다는 의식구조입니다。

서널리즘이 크게 팽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립石炭공사와 퍼타미나(국립석유공사)를 통해 국내에너지資源의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木材도 일단 국내에서 加工한후 수출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번 聲明은 우리가 여타 아세안국가들과 차례로 맺을 공동성명의 샘플이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1·12제의와 6·5提議에 대한 印尼側의 지지는 나머지 아세안국가들의 지지를 代辯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朴위원=이번 巡訪결과 韓·아세안協力을 위한 구체적인 常設기구, 예컨대 美·아세안다이얼로그 또는 日·아세안포룸같은 常設기구를 개설키로 합의할수 있을지 적이 궁금합니다。

▲成대사=全대통령이 頂上회담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高麗聯邦制에 관해서도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 표현은 南北對話에 대한 우리정부의 신축성을 다시한번 提高한것으로 봅니다。 또 이와 관련, 『北傀가 誤判으로 再侵을 기도할경우 全滅을 자오해야할것』이라는 표현은 北韓의 武力위협에 대한 우리의 決意를 나타낸것으로 北韓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더한층 확고하게 했다고 봅니다。【진행=金勝雄기자】

메아리

프로의 根性

서울과 지방의 구장에서 오랜만에 함성이 터졌다。 더위를 쫓아내는 소나기 같은 게임의 연속이었다。 축구애호인들의 갈증이 시원하게 풀렸을것이다。 무엇보다 오뚝이같은 花郞의 재기가 반갑다。 쿠웨이트에 패한 이후 날개 잃은 독수리 같지 않나 하던 걱정이 부질없는 「기우」였음을 입증해 다행스럽다。

올해로 11번째인 대통령배 국제축구는 이번 대회가 가장 화려한 잔치였다고 하겠다。 26일 하오에 있었던 花郞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은 오래 기억될 한판의 명승부였음이 틀림없다。

그라운드의 熱火에 휩싸인 양팀은 동점에서 연장전을 할수 없을 만큼 격렬한 육탄전을 벌였다。 이대회를 통해 우리는 남미 프로축구의 무서운 「根性」을 보았다。

며칠전 미국 프로야구에서 진기록이 나왔다。 8시간 26분에 걸쳐 33회전을 치렀다。 이와비슷한 끈질긴 싸움이 남미 프로축구에서도 있었다。 19년전 축구황제 펠레가 소속했던 브라질의 산토스팀과 우루과이의 페나롤팀은 3시간30분(휴식시간포함)의 대열전을벌여 끝내 3대3으로비겨 버렸다。 밤9시30분에 시작된 경기가 다음날 새벽1시까지 차고 달리며 계속된 것이다。 이런 놀라운 승부욕과 열광이 남미에서 축구전쟁까지 일으켰다고 생각해 본다。

花郞과의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는 거친 플레이를 보여 관중을 놀라게 했다。 주심의 경고카드가 여러차례 손에 올랐다。 한선수는 퇴장을 당했다。 「프로의 세계」를 우리는 다시 보아야할것 같다。

게임 매너에서도 아마와 프로는 다르다。 영국케임브리지의 아마축구팀인 칼리지팀은 창설후 24년동안 한번도 「주의」나 「퇴장명령」을 받은 선수가 없을만큼 「신사사커」의 참모습을 보여 주었다。

우리선수들이 아르헨티나팀의 거친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고 끝까지 침착하게 따라 붙은 것도 아주 자랑스럽다。 아마와 프로의 중간 단계쯤에 있는 한국축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것을 배웠으리라고 믿는다。

「오뚝이花郞」의 앞길은 여전히 험하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高地가 차츰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스타의 발굴로 다시 젊어졌지만 이 覇氣가 빨리 성숙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中共에 최대의 權力改編

6中全會 어제開幕 鄧小平派 實權장악 예상

黨主席에 胡耀邦·華國鋒을 강등 副主席에

【北京27日綜=聯】中共은 華國鋒의 黨주석직을 胡耀邦으로 代替하는등 共產黨史上최대의 권력개편을 단행하기위한 黨中央委제6차전체회의(6中全會)를 27일부터 3일간 개최한다고 日本의 교오도(共同)통신이 中共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통신은 1976년 毛死後 黨주석직을 승계한 華가 이번 회의를 통해 黨부주석으로 강등될것이라고 말하고 이에따라 中共내부의 권력투쟁에서 黨부주석 鄧小平派가 실권을 완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共소식통들은 6中全會에 앞서 예비회담이 지난15일부터 25일까지 비공개로 열려 새로운 黨지도체제및 毛의 재평가문제등을 토의해왔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오는29일까지 계속될 6中全會에서는 華의 黨주석직 해임외에 수상 趙紫陽, 정치국원겸 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代) 상임위부위원장 彭眞이 黨부주석으로 임명되며 鄧에 비판적인 葉劍英과 그밖의 3명의 다른 당부주석은 유임될것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이회의를 결산하는 공식성명이 발표될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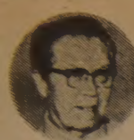
中共, 毛찬양 再開

華 축출 댓가인듯

【北京26日AP=聯】중공당중앙위가 당주석 華國鋒의 지위격하를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가운데 중공의 언론기관들은 故毛澤東前당주석에 대한 찬양을 재개하고있어 중공의 현실력자인 당부주석 鄧小平이 華國鋒의 거세조건으로 毛찬양을 다시 허용한것으로 추측되고있다。 중공의 주요일간지인 北京日報는 26일 중공당을 찬양하는 기사를게재하면서 毛의 사진을 함께싣고 『毛사상은 당과 국가의 공동투쟁에서 영구한 지침가될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그밖의 신문들과 방송도 최근 毛의 찬양을 강화하고있다。

中共·印度 불화終熄 시사

黃華, 亞洲단결 協力용의
라오, 領土반환요구 철회



◇黃華

◇라오印度外相

【뉴델리26日AP=聯】세계의 두 최대인구국인 중공과 인도는 26일 인도를 방문한 중공의 외상 黃華와 P·V·나라시마·라오 인도외상간의 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한 세대동안 계속 되어온 긴장관계를 종식시킬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지난62년 중공·인도국경전쟁이래 중공고위지도자로서는 거의 20년만에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한 黃華는 이날 2시간30분간에 걸친 라오외상과의 회담이 끝난후 참석한 환영연설에서 중공이 「외부의 침략과 간섭에 대항하는 공동노력을 통해 아시아의 단결을 강화하기위해 인도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라오외상도 인도가 중공과의 다른 문제토의에 앞서 62년 국경전쟁당시 잃은 영토의 반환을 요구해온 오래된 입장을 포기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楊得志 유럽4國巡訪길

中共軍수뇌로는 最初로

【北京26日AP=聯】중공군총참모장 楊得志는 벨기에 프랑스 영국 스위스등 서유럽 4개국 군지도자들과 군사협력과 세계전략문제를 토의하기위해 중공군수뇌로는 최초로 27일 3주간의해외여행길에 오른다고 北京주재 유럽외교및 군사소식통들이 26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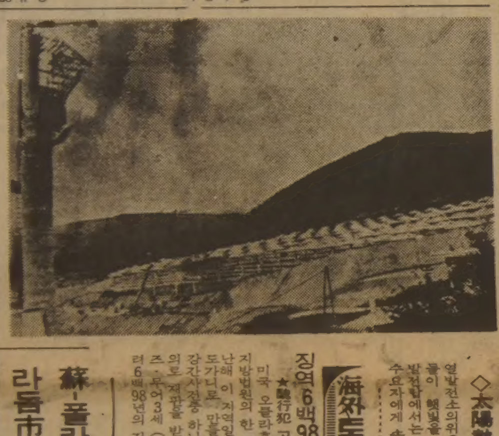
익명을 요구한 이들 소식통은 楊得志가 이번 유럽방문중 무기구매및 고등기술도입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을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이번기회에 이문제가 일부나마 논의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東歐공산국、波에 警告書翰

"反革命·反사회주의分子 뿌리뽑으라"

【바르샤바26日UPI=聯】폴란드공산당지도자들은 폴란드 사회주의를 위협하는 『반혁명·반사회주의』분자들을 뿌리뽑으라는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의 경고서한을 이달초 받은데 뒤이어 금주중에도 적어도 다른 3개 동구공산국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받은것으로 26일 밝혀졌다。

폴란드관영 PAP통신은 헝가리와 불가리아의 공산당지도자들이 지난22일 특사를 통해 폴란드에 서한을 보냈으며 이에 뒤이어 체코도 바르샤바주재 자국대사를 통해 카니아 폴란드공산당제1서기에 서한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太陽熱 발전소 프랑스南部 타르가손느에 건설된 「메미」태양열발전소의위용。 오른편 산비탈에 설치해놓은 거울들이 햇빛을 한편발전탑 열판으로 집중시키면 이 발전탑에서는 증기순환방식으로 태양열을 전기로바꿔 수요자에게 송전한다。【파리AP=聯】

蘇·폴란드軍 합동 機動訓鍊

라돔市선 76年暴動기념행사

【바르샤바26日AP=聯】폴란드군은 남부 실레지아지방에서 지난 25일 소련과 폴란드의 합동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폴란드관영 PAP통신과 바르샤바방송이 26일 보도했다。

PAP통신과 바르샤바방송은 소·폴란드 합동군사훈련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전통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훈련이 『애국심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장병들의 교육에 공헌한 아니라 장병들간의 유대와 우호를 다져주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는데 이같은 공식보도는 이훈련이 폴란드공산당지도자들을 위협하려는 소련의 기도라는 억측을 배제하기 위한것으로 보인다。

埃、수단에 軍事고문단派遣

수단-리비아 緊張高潮속에

【카이로26日=聯】이집트는 남부국경인접국 수단과 리비아간의 긴장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최근 일단의 군사고문관들을 수단에 파견한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집트와 수단은 방위동맹을 맺고있으며 사다트이집트 대통령은 수단과 리비아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개전초기부터』 수단에 軍事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海外토픽

징역6백98년要求

★騙取犯 고래고래 고함

미국 오클라호마주 툴사시 지방법원의 한 배심원은 지난해 이 지역일대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일련의 강간사건등 하나와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제임즈·무어3세(26)에게 무려6백98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주도록 요구했다。

지난해5월 툴사시의 아파트에서 34세 여인을 강간한 무어3세는 배심원의 이같은 요청에 노발대발 『9개월동안 이나 가두어 두었으면 됐지 그래도 모자라느냐』면서 자신을 쳐다보며 각각 놓았다고 고래고래 고함。

앞서 빌·무스먼 검사보는 무어에대한 논고장에서 이배심원에게 1천8백74년의 징역형을 제의해달라고 요청했었다。【툴사(美오클라호마州)=AP】

長征때 동굴公開

★中共黨 창당 60돌맞아

지난1934년 당시 국민당군에 밀려 대장정을 겪은후 山西省의 延安에 피신했던 毛澤東과 공산당지도자들이 지휘본부로 사용했던 동굴이 중공당 창당60주년기념일인 오는7월1일 일반에게 공개된다。

동굴공개와 함께 延安에서는 혁명기념관도 개관, 당시 공산당지도자 3백여명의 초상화와 이들이 사용한 각종 문서및 서적·가구·무기등 2천1백46점도 다시 공개된다。【北京=AP】

教皇 또 身熱증세

2週이상 入院해야

【로마26日UPI=聯】지난달피격후 총탄제거수술을 받은데 이어 최근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재입원한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또다시 身熱증세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2주이상 입원해야할지 모른다고 그의 주치의들이 26일 말했다。

교황이 입원하고있는 로마시내 제멜리병원의 의사들은 교황이 이날 38도의 신열증세를 보였다고 말하고 이같은 증세는 아마도 교황의 복부수술을 최근 1개월간 연기시킬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란, 8명처형

쿠르드族 반란

【테헤란26日外信=聯】바니·사드르 이란 대통령의 해임과 함께 처형선풍이 일고있는 가운데 이란회교혁명정부는 26일 회교혁명수비대와유혈충돌을 벌인 쿠르드族반군 8명을 처형, 지난주말 테헤란의 반정부시위이후 처형된 사람의 숫자는 52명으로 늘어났다。

이와동시에 이란회교지도자 호메이니옹의 한 측근은 회교혁명법원의 이같은 처형판결을 찬양하면서 계속 단호한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란의회회교강경파들은 범죄자들에『눈에는 눈』식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수학 특별지도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과 실력에 따라 다음의 교재를 준비지도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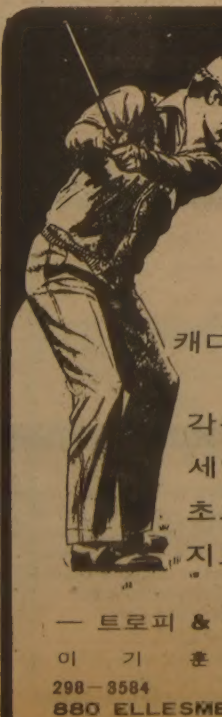
1) Vocabulary Development(단어실력 양성) (10 Lessons)
2) Comprehension 1, Comprehension 2(이해력 양성) (각 10 Lessons)
3) SRA(SRA교재) 1권(10 Lessons)
4) Novel Study(소설) 두권
5) Mathematics Problem Solving(수학응용문제) (10 Lessons)

(약 1개월분, 학교서 영어 수학 공부의 능경도 분량)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의 Profile을 작성해 아래주소로 보내주십시요.

STUDENT'S PROFILE

1) Name ____________ 2) Address ____________
3) Tel. ____________ 4) Grade in Sept. ____________
5) Think very carefully and circle one of the underlined. This is very important in designing your learning materials. In my class(grade), I am
a) below average, average, above average in Reading(English)
b) below average, average, above average in mathematics
c) I read books not fluently, fluently, very fluently
d) my 2 favourite subjects or hobbies ________ ________

1429 MALIBOU TERR., MISSISSAUGA, L5J 4B9
TEL. 822-5735 현 캐나다 영어·수학교사 윤 종 석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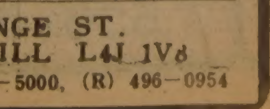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NORTH YORK CHEVROLET OLDSMOBILE GM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韓国衰民列伝

激動의 近代를 살다간 偉大한 한국人들

꽹과리에 삶 바친 「마지막流浪人」

男寺黨의 상쇠 崔聖九

7세때 安城복만이패에…15세부터 상쇠잡이

日人署長에 빰맞곤 3日間굶은채 쇠두드려

서민들 가슴울린 "神秘의 쇠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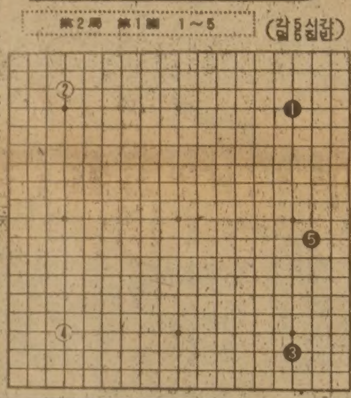
◇최후의 유랑인 崔聖九。그는 전국을 떠돌다 홀홀히 사라졌으나 신비한 쇠소리는 지금도 많은 서민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蔡彦子기자〉

제⑫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2局 第1譜 1~5 (각5시간)

白(名人) 曺薰鉉〈八段〉
黑(挑戰者) 徐奉洙〈八段〉



도전자도 中共式布石

世界최초의 硏究凱歌

나의 이력서

〈園芸·玄信圭〉

玄信圭 ⑱

「록」財團원조로 農大에 「기상실」도입

◇소나무 挿木發根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연구비를 지원한 미농무성으로부터 69년 3월 감사장을 받았다。

소나무挿木 發根원리 밝혀 美에도 알려져

文化短信

「韓國文學」新人賞 당선자 5명발표

2회 又玄문화상 鄭永鎬박사 받아

여름철 外國語특강

吳世元 첫조각전

現代人의 健康百科

선글라스

光線흡수율 30%以下의것 바람직

金在浩〈韓一病院 안과〉

모든 것이 있는 生 〈134〉

趙善作 作 / 禹慶熙 畫

그림자놀이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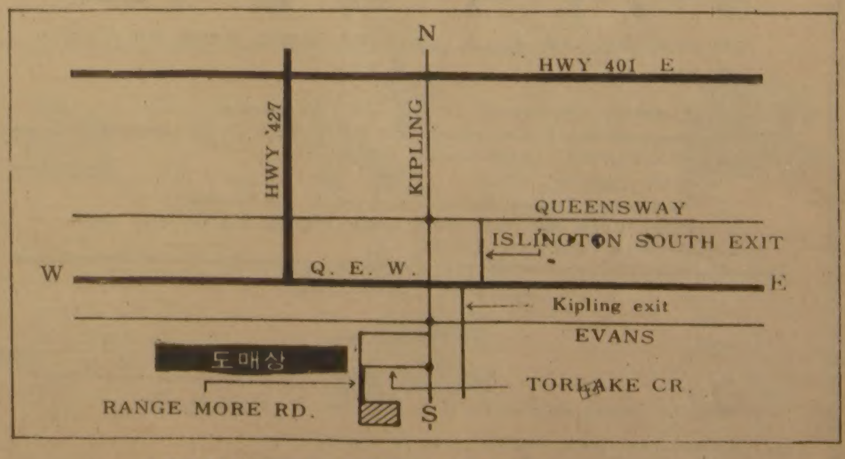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간판부 : 각종간판·윈도우 싸인·쇼-카드전문
●그래픽 디자인부 : 신문광고·상업디자인·비지네스및 개인명함 회사나 단체 마-크·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쇄부 : 도서(책자)·편집및 출판(광고지 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 535-0647, 0545
대표 홍 관 헌

거 구 장
—특 별 메 뉴—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 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미국 이민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민쿼터제
●노동허가법
●학생비자발급
●그외의 문제등, 또한 지금 어떠한 종류등 이민수속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분
위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뉴욕에서 다년간 이민법에 종사하신 미국인 변호사 ROGER C. ALGASE(알게이즈 씨)에서 좀더 알기쉽고, 자세히 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사무실엔 항상 한국인 보조원이 계시어 불편없이 도와드립니다.
연락번호 : (212) 762-5100
연락주소 : 136-31 ROOSEVELT AVE. Suite #2 FLUSHING, N. Y. 11354

한 인 연 합 상 사



★주문전화 : 251-6578 MISS 정
27 RANGEMORE RD. TORONTO, ONT.
영업시간 : 월~토 8시~6시30분
※토요일 오후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新風土記

黃土峴 <全北 井邑>

吳贊植 <作家>

우리의 안식처는 가정이다. 조금더 나아가면 이웃과 사회로 확산될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안식처를 좀더 넓혀 祖國이라할수있다. 그조국과 사회가 존폐의 위기앞에 풍전등화가될때 어찌 이웃과 가정을 감히 생각할수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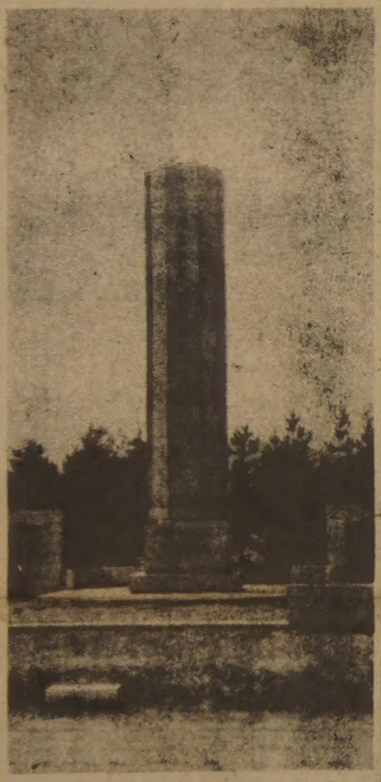
1894년 甲午東學革命이야말로 내조국을 지키면서 내가정의 안식처를 되찾으려는 이고장 농민들의 民權투쟁이었다. 봉건제의 학정에대한 古阜농민의 蜂起는 우리에게 근세의 黎明을 告하는 역사의 새章이다. 除暴救民·保國安民의 기치아래 갑오혁명거사당시 東學農民軍과 黃土峴에 진을치고있던 전라감영의 官軍이(營兵7백50, 褓負商5백60명) 일대 공방전을 벌였다. 이 싸움에서 官軍은 대패했고 [illegible] 비롯해 수백명이전사했다. 이날이 바로 1894년5월11일 새벽이었다.

학렬명의 발상지인 이고장에서는 매해마다 5월11일을 郡民의 날로 정해 甲午東學祭를 지낸다. 이날은 全郡民이 와권히 축제무드에 젖는다. 入場行列을 비롯, 백일장·국궁대회·군기쟁탈 마라톤경기·씨름대회·농악경연·民俗행진·竹槍이 등 각종 紀念祭를 거행하고있다. 올해로 14회째. 甲午東學祭를 지내는 이고장에서 동학군의 첫 전승지인 黃土峴에 기념탑을 세운것은 1963년이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illegible]에 의해 세워진 黃土峴의 戰跡地는 德川面下鶴里山에 서있다. 井邑읍내에서 비포장도로로 6㎞ 거리에 있는 기념탑은 全琫準장군 성역화계획에 따라 예원 3만여평의 黃土峴고갯마루에 버티 서있다.

동재단의 맨꼭대기, 사방허통의 고갯마루에 서니 아득한 구릉과 山이 멀리 바라보인다. 黃土峴의 소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각기도 멋지게 뻗어내려 머물렀고 모내기를 끝낸 논은 山色이 무색할 정도인데, 동학의 처절하지는 평민 한날의 정적 속에의 연하다. 黃土峴을 휘돌았던 그 메아리라도 들으려는듯 산새의 지저귐도 숙지근한 정오―경내는 적막하여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다. 7~8m 높이로 우뚝 선 탑신혁명 기념탑위의 피뢰침이 하늘처럼 눈에 거슬린다. 저것이 탑위로 치솟지 않고서는 낙뢰피해를 방지할수 없을까 생각해본다. 비문편의 碑記浮彫으로 눈을 돌린다. 이고장 농민들이 군수 趙秉甲의 악정에 항거하여 동학의 接主 全琫準(일명 녹두장군)을 선두로, 除暴救民·保國安民을 부르짖으며 농기구대신 죽창과 창을 들고 탐관오리들과 맞서러 나가는 장면을 묘사한 碑記浮彫는 보는이로 하여금 선열들의 정의로운 민중운동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한다.

靜寂만 감도는 東學農民軍의 첫 戰勝地



◇黃土峴 마루턱에 서있는 甲午東學革命기념탑. 東學농민군과 관군이 격전을 벌였던 黃土峴에는 민권을 부르짖고 일어선 東學혁명군의 얼이 서려있다.

봉건전제에 짓밟히고 있는 민권을 제창하고 열강(淸·日)의 틈바구니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는 민족을 구하려고 민중을 이끌었던 全琫準장군(1855~1895)은 [illegible] 농민들의 봉기는 [illegible] 위대한 사상가 [illegible] 화산, 정부의 관군만으로는 [illegible] 지 못하게 되어 淸나라와 日本의 군대까지 불어와 진압하게 되었다. 그결과 淸·日 두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 안에서 청일전쟁 [illegible] 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후 [illegible] 투쟁한 지도이념상을 [illegible] 어서 역사의 새章을 연셈이다.

당시 농민들의 호응은 대단했던 것도 없었던 모양. 그 때문에 생겨난 지명만도 全北에는 많다. 金堤에서 扶安사이의「竹山」은 동학혁명군에 가담키위해 竹槍을 들고 모여든 농민들이 山을 이루었다는데서 생겨난 지명이며, 서면 白山이오 앉으면 竹山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흰옷 입은 農民軍이 [illegible] 면 손에든 竹槍이 산을 이룰 정도였다는 것이다. 봉건제의 학정에 대한 농민들의 어쩔수 없었던 뜨거운 몸부림이었던것 같다.

동학혁명을 영도했던 全琫準녹두장군은 결국 [illegible] 잡혀 서울에서 5차에 걸쳐 심문을 받은다음 3월29일 41세를 일기로 처형을 받았다.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遺詩를 남겼다.

時來天地皆同力 運去英雄不自謀 愛民正義我無失 爲國丹心誰有知 (때만나서는 천지도 내편이더니/운이 다하니 영웅도 어찌 할 수 없구나/백성 사랑하는 올바른 길이 무슨 허물이던고/나라 위한 일편단심 그 누가 알리)라는 遺詩는 그의 천추에 유한이 담긴 녹두장군의 영혼은 영원히 전해지고 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녹두밭에 앉지마라/녹두꽃이 떨어지면/청포장수 울고간다.

이러한 녹두장군의 노래가 紀念碑文碑위에 刻字된 黃土峴은, 동학혁명의 정신을 새시대 [illegible] 정신의 교육장으로 가꾸어 淨化계획중이다. 이곳을 찾는 선열의 얼을 추모하는 가슴 마다에는 내조국과 우리사회, 우리 가정이 전진으로 우리를 안식처임을 깨닫게해 줄 것이다.

한국系교포등 9천명에 美市民權수여

◇美로스앤젤레스 콜리세움 경기장에서는 6월22일 한국계 1천4백명을 포함한 9천7백명의 이민이 무더기로 시민권을 받았다. 이날 선서식에 참석한 한 교포부부도 오른손을 들고 시민선서를 하고있다. 【로스엔젤레스支社 [illegible]】

세계의社会面

美에도 姓名哲學붐

2年새 40%가 改名

LA근교에 작명소 盛業

독특하게 바꾸는이 많아

과학·합리주의의 나라 미국에도 姓名哲學붐이 일고 있다. 미국사람도 자기이름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흔히 개명하고 있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명했는가에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改名광고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로스앤젤레스의 데일리·저널紙에 따르면 지난1~2년 동안에 이름을 바꾼 사람이 약40%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작명소도 이곳저곳에 우후죽순처럼 번창하고있다.

로스앤젤레스근교 산타모니카해변에 들어있는 작명소에 가서 25달러(1만8천원)를 내면 작명철학가는 이름을 상세히 분석, 의미를 설명하고 손님구미에 맞는 이름을 지어준다. 대개 동양사람은 발음하기 어려워 개명하고 회교도들은 종교상, 유태인은 사업·결혼·이혼상등의 이유로 이름을 바꾸곤한다.

LA법원의 개명통계를 보면 남자는 이름을 아주 독특하게 바꾸는 사람이 부쩍 늘었는데 어떤 사람은「예수 그리스도 2세」라고 개명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는 어떤 이름으로 바꾸든지 제약이 없다. 한 심리학자는 미국에서 이름은 피부색과 외모다음으로 그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한다. LA근교 [illegible]에 사는 데이비드·카메시따씨는 78년 재니수 [illegible]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부인이 남자의 성을 따르려고 하지않아 하는수없이 자기성을 부인성으로 고쳐 버렸다. 【로스앤젤레스支社】

중학생失踪 18일째

【濟州=聯】학교간다고 집을나간 중학생이 책가방과 교복만 발견된채 18일째 돌아오지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실종학생의 어머니 姜貞姬씨(50·濟州市道南洞37)에 따르면 4남인 五賢중학교2학년인 高永男군(16)이 지난8일 상오7시30분께 학교에 간다며 나간후 소식이 끊겼는데 가출13일째인 지난21일정오께 北濟州郡涯月面郭支里에있는 南洋산업 전분공장서쪽 50m지점에서 모자와 교복웃도리, 책가방등만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30년戰爭」벌인 日폭력단勢力

'야꾸자' 데탕트2年

일본의 폭력단「야꾸자」는 마피아보다 돈잘벌고 조직이 방대한 범죄신디케이트다. 일본의 밤을 지배하는 그 야꾸자사회가 모처럼 데탕트를 유지해오고있다. 조직끼리의 주도권쟁탈전은 패전후 혼란한 틈을 계기로 일어나기 시작, 지난79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른바 야꾸자들끼리벌인「30년전쟁」이었다.

大組織끼리「不可侵협정」

이사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낮 거리에서의 총격전이다, 인간흉탄사건등이 [illegible] 없었다.

대표적사건은지난77년의「오오사까(大阪)전쟁」. 당시 일본 최대의 야꾸자조직 야마구찌구미(山口組)의 代父격인 다오까(田岡)組長이 고오베(?)의나이트클럽에서 반대파 마쓰다(松田)組의 야꾸자로부터 총격받았다. 다오까는 죽음을 모면했으나 두조직간의 전쟁이 발발 야꾸자 수명이 목없는 시체로 발견되는등 경찰도 해결못하는 끔찍한 사건이 연발했다.

그 야꾸자사회가 숨을죽이고 지난 79년이래 2년째 평화를 구가하고 있는것이다. 야꾸자 사회의 평화는 조직끼리의 평평한 세력균형에서 비롯된다. 균형이 깨진다면 언제라도 참혹한싸움이 벌어지게된다.

야꾸자의 데탕트는 지난79년4월 야마구찌組의 대부 다오까와 대규모 [illegible]의 협상 때 이루어졌다. [illegible]는 일본 간사이(關西)지방의 대규모 야꾸자 조직의 하나. 두사람은 당시「더이상의 항쟁은 피하자」고 합의했다. 다오까는 이미 그보다 7년전인 72년 최대경쟁조직인 이나가와까이(稻川會)와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한바있다.

◇山口組의 대부 다오까 가즈오(田岡一雄)

야꾸자들의 전쟁과 평화는 야마구찌組의 손에 달려있다. 가장큰 조직력과 힘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청당국의 폭력단에 관한 조사자료는 이를 잘 뒷받침한다. 80년말 현재 일본전국의 조직폭력단 수는 2천4백87개, 구성원은 10만3천9백55명이다. 이중 야마구찌組가 5백59개의 조직을 갖고 휘하에 1만1천8백78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일본전국 47縣중 33縣이 조직의 영향권아래 있다. 이정도면 조직의 우두머리 다오까는 일본의「밤의 天皇」과 다름없는것이다. 두번째로 큰 이나가와까이組나 스미요시렌고(住吉連合)보다 5배이상이나 큰 세력이다. 이나가와까이는 조직수가 1백4, 스미요시렌고는 1백8이다.

◇조직의 대회에 참가하기위해 北海道지도세공항에 내린 山口組의 야꾸자들을 경찰이 몸수색하고있다.

최대 山口組 代父다오까 病中에 숨지면 版圖 개편싸움 再燃될듯

옛날엔 '俠客'…지금은 麻藥밀매등 돈벌기血眼

야꾸자들은 원래 협객(俠客)으로 불려 왔다. 깡패이긴하지만 돈보다 의리와 명분을 앞세웠다. 야꾸자가 주인공이된 협객영화가 한때 유행할 정도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성장은 야꾸자의 성분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오늘날 야꾸자들이 가장 숭상하는것은 돈이다.

일본경찰은 공식적으로 야꾸자라는 말을 쓰지않는다. 폭력단이라 부른다. 그 정의는「폭력을 배경으로한 직업적 범죄자조직」이다.

예전엔 폭력을 공공연히 앞세웠으나 이젠 폭력은뒤로 숨기고 지능을 앞세운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엄청나다. 자그마치 연간 8천7백억엔(2조8천7백억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illegible] 히로뽕 밀매 4천5백79억엔, 찬조금징수 1천7백53억엔, 도박 6백91억엔이고 이밖에도 풍속업, 총회꾼, 구역료징수, 빚대신받아주기등으로 돈을 벌어들인다.

대부분의 돈은 구역확장과 조직의 운영에 쓰인다. 야꾸자의 하급조직원이라 해도 어지간한 회사원의 평균수입보다 웃돌고있다.

야꾸자는 철저한 피라미드형 계급사회다. 야마구찌組의경우 다오까밑에「샤떼이」(舍弟)라불리는 최고권력자4명이 조직을 운영한다. 사무기관으로 6명의 [illegible](山老會)와 와까가시라(若頭)1명, 보좌관8명등 간부들만 1백4명이다.

현재의 매파론는 야마구찌의 대부 68세의 다오까의 병세에 달려있다. 다오까는 심장병과 고혈압을앓고있는데 그가 만약쓰러지면 야꾸자세계의 스테이터스쿠(현상유지)는 삽시간에 깨지고, 치열한 주도권쟁탈전이 다시 일어날것이다. 【마이니찌·데일리뉴스=本社】

記者의 눈

4人표류자와 한독2號

한국원양어선 한독2호(부산선적·4백29톤)의 유규환선장과 미국인 존·베손씨 일가는 20개월만에 호놀룰루 제9부두에서 다시 만났다. 갑판에서는 한 박수가 터졌다.

베손씨가족은 망망대해의 표류자였고 한독2호는 그들의 구조자였다.

조난중에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베손일가는 한독2호와 헤어진뒤 연락처를 잃어 애태우다 한독2호의 호놀룰루입항을 계기로 재회를 갖게되어 반가움이 더욱 컸다.

베손씨는 부인 자넷, 아들 신, 딸 돌라우의 가족들과 함께 8톤짜리 요트 [illegible]호로 지난69년6월1일 호놀룰루항을 떠나 표류하기 시작했다. [illegible] 남태평양을 1천4백㎞나 표류하며 식량도 바닥나 가족이 기아와 피로로 [illegible] 동경 1백67도의 적도지점에서 마침 참치잡이를 하던 한독2호에 발견된 것이다.

한독2호는 요트의 고장난 돛을 고치고 엔진을 수리해주고 다시 항해할수 있게 돌보아 준다음 4인의 두달분 식량과 예상위치 시계까지 주고 헤어졌다.

그후 베손씨가족은 구조의 은인을 찾아 보답하려 했으나 [illegible] 귀환했다.

그러다가 하와이 한국교민들의 협조로 한독2호가 호놀룰루에 입항한다는 소식을 확인, 마침내 유선장을 다시 만날수 있게된것이다.

그런 한독2호의 해난구조 미담이 [illegible] 유선장은「조난구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간 소식을 묻지 않은것은 오히려 보답을받으려는 속셈이라도 있는 것으로 오인받기 싫은 때문이었다」고 겸양지덕을 보였다.

겸허한 한국인과 은혜를 잊지않는 외국인가족의 이야기에서 인간애를 느끼게 된다. 【[illegible]기자·外信部】

張吉山 (1600)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60)

『어어 허, 우리 중생 바라시주 내려와서 도와주고 보살 도와주고 어어, 모두 이렇게 타령을 허구 놀아서 논게 아니로다. 화가 나서 놀았지 얼씨구나』

원향은 온몸이 젖을 정도로 뛰고 춤추며 소리하였고, 안무당과 계화는 혀를 차며 감탄하였다. 원향이는 이제 완전히 제 본성을 찾았을뿐더러 전보다 더욱 깊은 영험을 지닌 어엿한 만신이 되었던 것이다. 열 마당이 지나고부터 뒤의 동제까지는 계화가 이어받아 놀았는데, 역시 원향이만한 힘과 신명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풍열스님은 시종 말없이 그들의 하는양을 지켜 보다가 초저녁에 암자로 올라갔고, 옥여는 모갑이 입가 김승운 등과 더불어 곡차를 흠뻑 마셔서 나중에는 거사들이 절까지 떠메고 [illegible] 계화가 곁에서 눙치는 것이었다.

『아따 남의아이 데려다 풀고 자며 계를 깨뜨릴 적은 언제고, 까짓 술한잔에 남의 눈치를 보슈?』

『그러게나 말야. 원향이 정신이 돌아왔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내가 사위를 삼아버릴라구 하였지』

김승운이도 껄껄대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원향이는 자리앞에 머리를 숙이고 앉아 두 손으로 표주박을 받쳐 올렸던 것이다.

『제가 성귀(聖鬼)를 모시는 지성과 스님을 모시는 마음은 같사옵니다. 어서 드십시오』

『그래…』

여환이 우물쭈물 술을받아마시자 김승운이가 다시 한바가지 떠서 내밀었다.

『내 것두 한잔 마셔보우』

여환이 이번에는 서슴치않고 받아마셨다. 안무당이 장고를 당기며 말하였다.

장단을 간간이 그치며 양미간을 찌푸리고 바르르 떨었다. 마치 으스스하여 소름이라도 느끼는듯한 자세였다. 백련이가 얼른 눈치채고 물었다.

『왜요… 어머니 한번 노시게요?』

『아니야』

『성님 공수 받는 거유?』

『아니…우리 영감이 보였어』

안무당은 부스스 일어나며 무엇인가에 끌린듯이 마당으로 나갔다.

『비켜…비켜』

계화가 나직이 말하자 원향이는 가녘으로 물러났고 구경하던 사당말 사람들도 조용해졌다. 마당 양쪽에 피운 모닥불의 불빛이 일렁거릴뿐 장단은 모두 멈추어져 있었다. 안무당은 잠시 꽂힌듯이 섰다가 어디선가 가락이 들려오는지 어깨를 움찔움찔 추스르며 팔은 늘어뜨린채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몸은 서있는채 그대로 있고 손가락들만 움직이는 희미한 동작에 지나지 않았으나 몸짓들의 움직임과 그치는 간격이 정확하여 저절로 장단이 흘러나오게하는 것이었다. 김승운이가 장고를 잡아 장단에 붙였다. 안무당의 눈은 벌써 허공을 쫓고 있었으며 발끝이 치마자락 끝으로 살며시 오르는 중이었다.

6·5提議 수락촉구 3도시서 궐기大會

【大田·春川·濟州=聯】북괴의 재침흉계를 규탄하고 6·5평화통일제의의 수락을촉구하는 거례의 함성은 전국으로 확대, 메아리치고 있다. 서울·釜山·仁川에 이어 27일상오10시에는 大田·春川·濟州에서도 도민궐기대회가 각계각층의 3만여도민들이 참석한가운데 열려『북괴는대남재침의 획책을 즉각 중지하고 민족의 양심으로 돌아가 6·5제의를 수락하라』고 촉구했다.

曺薰鉉, 徐奉洙제압 名人戰3局 2-1

한국일보社제정 제12기 名人戰도전 5번기 제3국에서 曺薰鉉名人이 도전자 徐奉洙7단을 제압, 토틀스코어 2대1로 徐7단을 막판에몰아넣었다.

27일 상오10시 한국기원특별대국실에서 열린 대국에서 曺名人은 黑을 들고 1·3을 小目에, 徐7단은 白2·4를 3·3에두는 두귀사 모두 근래에 보기드문 작전으로 나왔다.

제4국은 오는7월11일 예정.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SHANGHAI RESTAURANT

•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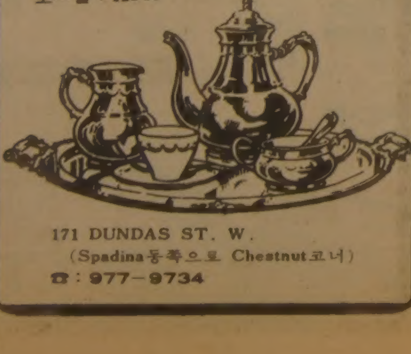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MR. CHOI'S RESTAURANT

●일식·한식·중국식●살롱음악
월~토, 낮12시~밤1시(일요일 휴업)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블루어안경

• Zeiss (Marwitz)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일선(No Appointment)
• 렌즈/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 지정 안경점
• Stock 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9 : 30AM~7P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소 : 629 BLOOR ST. W. TORONTO
☎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우황●사향●웅담
●녹용●정주사●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文豪의 名言

藝術로 制御된 天才만이 有効하다

호프만 <1776~1822>

독일小說家. 쾨니히스베르크서 出生, 그곳大學서法律을 배워 처음 司法官이 됐으나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실직했다. 畫家 音樂家 批評家 脚本도 쓰는등 多才多能, 거의 못하는것이 없었다.

자기 天才의 걷잡을수 없는 飛翔을, 예술의 극히 힘든 연구로 制御, 그것으로 최고의 표현에 도달한 자만이, 어떠한때에 예술의 헤아릴수없는 수단을, 완전한 효과를 얻는데 활용할수있는지를 안다.

× ×

그의 작품은 후세 사실주의와 프랑스 浪漫派에 큰 영향을 끼쳤다.

「藝術의 世界는 꿈의 世界다」 (타우바흐·독일 文人)

「藝術은 靈魂의 거울에 비쳐진 한조각의 세계가 아니라 靈魂의거울에 비쳐진 「나의靈魂이다」 (모르겐슈테른·독일詩人) 「예술가가 주는 最高의것은 그의 사랑하는것의 反映이다」(데크수타인·독일小說家)

"남을 돕는것은 곧 나를 돕는것"

曹溪宗 鄭草宇총무원장 오늘 취임식…宗正法語

◇李性徹宗正

佛敎曹溪宗 鄭草宇총무원장 취임식이 28일 상오11시 曹溪寺 대웅전에서 거행된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林龍庭스님(총무부장)의 개식사, 宗正법어(원로회의 의장 대독)에 이어 前總長 鄭在點佘장과 전국신도회 朴完一회장등의 축사가있을 예정이다.

가야산 白蓮庵에 수도중인 李性徹 宗正이 총무원에 보내온 법어는 다음과 같다.

천지는 나와같은 뿌리요 만물은 나와같은 몸입니다. 천지사이에 만물이 많이 있지만은 나외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하여 남을 도우는 것은 나를 도우는 것이며 남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해치고자 하는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깊이 깨달아 나를 위하여 끝없이 남을 도웁시다.

(게송) 바위를 돌로 앉아 일어서서 소리치니/허공이 무너지고 바다물이 말라졌네/크게웃고 돌아나서 먼곳을 바라보니/靑山은 가지마다 달빛이 찬란하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삶의 터전이되는 구들의 고통 외면 말아야

日曜日 아침을 위한 말씀

朴聖慈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편에 어떤조건이나 자격과는 아무관계가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自由人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바울의 복음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예루살렘교회의 유대주의자(율법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유대인의 우월성과 그 특권을 헌신짝같이 내어버리고 유대인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바울에 대해 불타는 증오심을 품고 있었으며,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바울을 죽이기전에는 먹지도않고 마시지도않겠다고 기를 쓰기도했다. 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찾아다니며 바울의 사도직은 예루살렘 교회와는 관계없다고하며 바울 개인에대한 인신공격으로 이방교회를 교란시켰다.

그리고 이방인 일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최소한도의 할례(割禮)만은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에대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순종하고 할례를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축거, 다른사람과 구별되었다는 표시라고 생각될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끌수있는매력이었다. 왜? 모든인간에게는 자기가 구별되었고 [illegible]

[illegible]

나의 告白

아무 감사할것 없는 絶望의 상황에도 절망않고 감사하는 것이 最大의 信仰

蔡奎哲 <형십자전무>

[illegible]

"無認可신학교정비 再考를"

기독교대책협의회서 성명

[illegible]

流星의 賦 <117>

亡兆의 日月 ⑧

李炳注 作 李友範 畫

[illegible]

宗敎

소식

「한국가톨릭여성사」

천주교 전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회장 黃粕慶修女)는 한국교회창립 2백주년을 겨냥하여 발간할 「한국가톨릭여성사」를 上下권으로 나누어 내놓기로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金玉姬修女(釜山女大교수)에의해 집필되고있는 上卷은 교회창립으로부터 4대박해를 통해 본 여성들의활동을, 下卷은 이땅에 최초로 상륙한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도입으로부터 근대에이르는 여성사를 다루게된다.

春川교구서 信仰대회

천주교春川교구는 이웃 전교의해를 맞아 교구내 복음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위해 7월5일상오11시 강원실내체육관에서 신앙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앙대회에는春川시내를 비롯 인접 洪川·加平지역의 본당이 참가하게된다.

솔뫼聖域化 표어모집

천주교 大田교구는 金大建신부 탄생지인 솔뫼성역화에 대한 의식계발과 신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위해 다음달15일까지 포스터및 표어를 현상모집한다.

포스터는 1등10만원 2등5만원 3등3만원이며 표어는 1등 5만원 2등3만원 3등2만원이다.

大圓精舍 불교교양대학

大圓精舍(서울龍山區厚岩洞 358의17)의 불교교양대학 강좌가 1일부터 9일까지(매일하오6시~7시30분) 실시된다.

강좌내용은 가정윤리(金仁德)불교와경제(李[illegible])우주의요소(李[illegible])정신위생(李東植)불교교육(金俊烴)불교와 화평(元義範)사회도덕(睦楨培)이상세계의실현(洪淵植)인간과환경(金槇泰)등.

불교청년회간부 訪日

대한불교청년회(회장 宣晉圭)간부8명이 29일부터 7월5일까지 韓·日불교청년회 2차회담을 갖기위해 일본을 방문하게된다.

지난5월하순 全日本 불교청년회 대표4명이 우리나라에서 교류자서를 교환한데이어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의 구체적인 교류방법·포교문제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妙覺寺 대웅전 낙성식

불교佛入宗 총본산인 妙覺寺(주지 李弘波·서울鍾路區崇仁洞178의3)대웅전낙성법요식이 지난 24일 정오 거행되었다.

불입종은 1942년 大蔵 李弘宣 해범사에 의해 창종되었으며 이날 낙성된 대웅전은 청기와지붕으로 5년불사끝에 완성된 것이다.

萬海 37周忌 추모제

萬海 韓龍雲선생기념사업회는 한국불교개혁의 선구자이며 3·1운동의 기수인 萬海스님의 입적 37주기를 맞아 27일 하오3시 망우리묘소에서 추모제및 추모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추모강연회의 연제는 「萬海사상과 그의 문학정신」연사는 작가 李炳注씨였다.

기독교敎授協 심포지엄

국제크리스천교수협의회(회장 [illegible])제1회 심포지엄이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26일부터열려 28일까지 계속된다.

이심포지엄은 林漢永교수(漢陽大)의 발제강연에 이어 논평 분과토의순서로 진행되는데 「오늘날 대학생의 의식구조와 기독교수의 책임」주제에 많은관심이 모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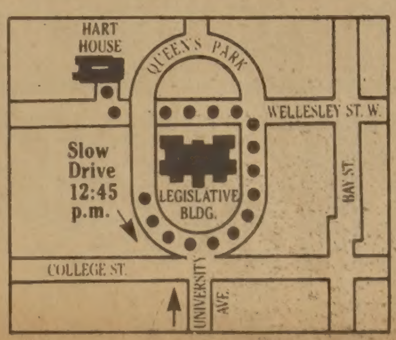
이슬람 廣州聖院 개원식

한국이슬람교 廣州聖院 개원식이 27일상오11시 경기도廣州邑 [illegible]에서 거행되었다.

공식초청

온타리오는 퀸 엘리자베드 전하의 모친을 환영합니다

토론토 퀸즈팍(칼레지와 유니버시티 애베뉴)에서 거행되는 여왕전하모친의 왕림을 축하하는 축제에 나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7월 3일 오후 12시 15분
사열과 공식환영예식

William G. Davis
Premier

Thomas L. Wells, Minister
Intergovernmental Affairs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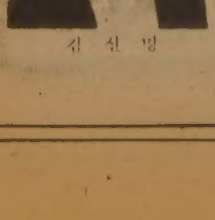
디자이너 MR. 김

606 BLOOR ST. W.
☎: 535-4441

SunLife OF CANADA

"여성보험인등장"

Sun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Congratulates Kim Shinmyong on her appointment as sales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s Toronto Metro Bra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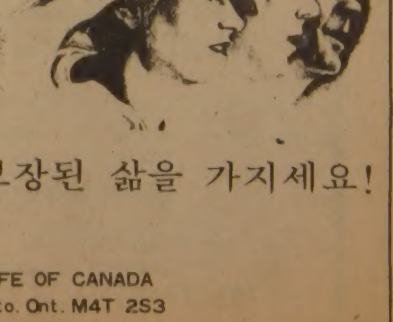


김신명

Sun Life 는 종전과는 달리 「생명보험」 뿐만이 아니라 교육, 연금, 주택, 사업금융 모기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읍니다.
이질 문화권의 캐나다 대륙을 딛고 새꿈을 이룩하려는 이민생활에서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는 보험에 관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성심 성의로 여러분의 곁에서 도와드리겠읍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들에 일익번영이 깃들기를 앙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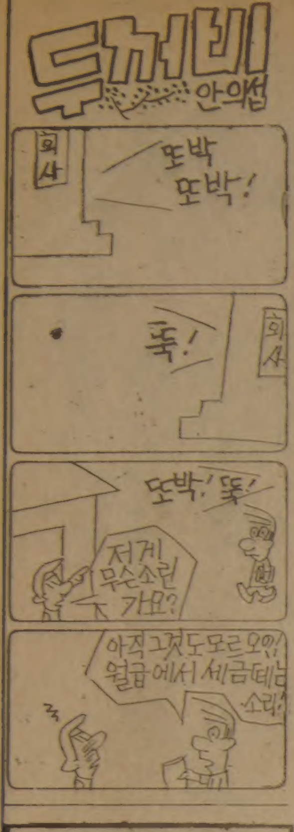
김 신 명 드림

취급보험
- 생명보험
- 교육보험
- 연금제도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R.S.P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B)922-3111 R)439-8885



江陵에도 옴病확산
初中高 21校서 千여명 걸려

【江陵=聯】 강원도 江陵시와 溟州군에 피부병이 번져 하루 40~50명씩의 학생들이 병원을 찾고있다.

27일 江陵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25일까지 각급학교에서 옴보이는 피부병환자는 溟州군 초등교 7개교 2백80명, 鏡浦중학교등 9개교 6백99명, 江陵商高등 5개교 1백44명등 모두 1천1백23명에 이르고있다.

한편 江陵시 보건소는 이 피부병은 옴이라고 밝히고 옷을 자주갈아입고 의복은 반드시 삶아 세탁하도록 당부했다.

홍콩에 콜레라

【홍콩26日=聯】 콜레라면역지역으로 알려졌던 홍콩에 콜레라가 약7년만에 다시 발생했다고 26일 홍콩당국이 밝혔다.

최근 중공을 다녀온 홍콩거주 중국인 黃木松씨(54)와 다른 두명이 심한 설사와 구토를 일으켜 홍콩섬소재 퀸·메리병원에 입원중인데 이환자중 黃씨가 바로 콜레라 E1을 앓고 있는것으로 판명돼 홍콩정청의 의무위생처는 즉각 방역조치를 강구하고있다.

黃씨가 앓고있는 콜레라E1의 증세는 먼저 심한 설사가 계속돼도 전혀 복통을 느끼지않고 설사물과 구토물질은 연한 쌀죽과 같다고 의무위생처는 밝혔다.

自然學習도중溺死

【忠州=聯】 26일하오1시50분께 충북忠州市丹月洞 達川江변에서 자연학습중이던 權赫洙군(11·忠州예성국민교4년)이 깊이 2m의 모래채취후 메우지않은 물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權군은 이날 7명의 인솔교사및 4학년생 3백50여명과 함께 강변에 자연학습을 나와 소라를 줍다가 실족, 변을 당했다.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변호사
534-1129
534-1120

무허洗車場서 廢水방류
2명拘束 16명무더기立件

서울지검 북부지청 金□一검사는 한강수계에 버려온 서울蘆原區上溪2洞 169의47 上溪주유소 대표 李□□씨(35), 道峰區 孔陵洞61의11 孔陵주유소대표 李□□씨(47·여)등 2명을 환경보존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서울東大門區 中和2洞26의3 진흥주유소 대표 朴□□씨(45)등 16명을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李씨등은 지난해2월부터 지난20일까지 자신들이 경영하는 주유소영업소에 무허가세차대 8개씩을 각각설치, 매일 60여대의 각종차량을 세차해주면서 허용치 1.5PPM보다 6배가넘는 9.3PPM의 폐유가 섞인 폐수를 배출시설없이 마구버려왔다는것. 또 이들은 관할道峰구청으로 부터 2차례의 세차장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해와 주민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넓어진 大學生「단기海外硏修」
見聞보다「쇼핑觀光」에

私設알선업체 亂立…계획 엉성
巨金 自費出國등이 문제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이후 올여름방학동안 대학생의 단기해외연수가 붐을 이룰전망이다. 이틈을타 엉터리 사설 해외연수알선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다 연수프로그램도 아직짜임새가 없어 해외에 나간 젊은이들이 환락가나 드나들며 쇼핑이나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당초부터 한 일로 예상돼 왔으나 그예상의 폭이 더 넓고 깊을것같아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나 보낼 부모들이 깊이 생각해주어야 할 구석이 많다.

쇼핑 目錄준비…"시집갈돈 미리달라"도
"연수보다는 百貨店"실토 올4千명나가

문교부가 예상하고있는 올해대학생해외연수는 국비3백30명, 대학자체보조1천7백15명, 자비2천명등 모두 4천여명선. 이 가운데 반이넘는 2천5백여명이 오는7, 8월두달동안 출국할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이들해외연수중 국비와 대학자체부담의 경우에는 문교부가 ▲사전오리엔테이션 ▲지도교수의선임 ▲연수대상국및 기관과의 사전협의등을통해 연수생들이 해외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것인가에 대해 상세한 프로그램을짜고 귀국후에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있어 비교적 문제가 적은편이나 그밖에 숫자가 더많은 자비출국의 경우에는 어느단체에서 얼마나 보낼것인지조차 파악되지 못하고있다.

27일현재 올여름동안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외단체관광(패키지·투어)을 준비하고있는 알선업체는 H유학공사, H유학정보센터, 해외학술연구소, 인터학원, 정진학원등 30여곳이나 되는데 이들단체는 예외없이 겉만번지르르한 일정을 내걸어놓고는 대학생들에게 세일즈공세를 펴고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외국의 대학과 특별한 관계에있음을 강조한후 그곳대학에서의 어학연수를 주요프로그램으로 선전하고있는데 정작 어학연수는 여행일정의 ⅓에불과, 그밖의 2주는 대도회지관광지와 쇼핑가등을 돌아다니는것으로 채우고있다.

지난겨울방학중 K협회 알선으로 東南亞에 다녀왔다는 朴모군(23)은 『막상가보니 알선업체에서 당초제시한 연수프로그램은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것이 없었고 할수없이 일반관광객들과 어울려 관광지와 백화점구경을 하다왔다』고 말했다. 또 이때 같이갔다온 鄭모군(24)은 『각대학에서 모인 학생들과 마음이 안맞아 개별행동을 취했다』면서 『어학코스는 대학방문도 하긴 했으나 미리 연락이 안돼있어 견학기식이었다』고 불평했다.

이들은 낮동안에는 그런대로 단체행동이 가능했으나 저녁때가되면 돈이있는 친구들끼리 따로 모여 쇼핑을 하거나 환락가등을 구경다녔다고 전했다.

한편대학생들의 해외연수중 가주세를보면 지난1년동안 95명에 불과했던 서울大가 금년여름에 총장추천을 신청한 학생이 27일현재 1백38명, 高大가 지난겨울 41명에비해 1백45명으로, 漢大가 60여명에서 1백80명으로, 中央大가 30명에서 1백3명으로 대부분 3~4배씩 늘어났다.

해외연수생수요가 이같이 늘어나자 각종사설알선업체들은 먼저 외국대학에 편지를보내 학생들을 보내주면 수업료의 15~20%의 커미션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 다시 국내여행사와 제휴, 1인당 10%안팎의 커미션을 받아내고 있다. 지금 미국을비롯 해외대학들이 학생부족으로 재정난인데다 여름방학기간동안의 시설이용을 위해 먼저 국내단체에 학생을 보내달라고 요구해오는수도 있다.

외국의 30~40개 대학에서 이같은 제의를 받았고 심지어 영국에있는 E·L·C(The English language Center)는 한국의 대리점으로 이단체를 인정한다는통보를 해오기도 했다.

이들이 1회 모집하는인원은 20~3백명. 해외유학공사의경우 오는7월30일부터 미국포인트·파크대학에 3주간의 예정으로 50명을모집하고 있고 시사영어사의경우 2백명을 모집, 이미 마감했다. 여행기간은 東南亞가2주, 미국파유럽은 3~4주씩으로돼있다.

한편 국제청년 학생교류회(麻浦區西橋洞358의37) 白秉根국제사업부장은 『대학생의 해외여행은 안목과견식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장기부이며 따라서 장려돼야 하지만 이를이용해 사리를 취하려는 업자들의 태도가 장삿속이 앞선 『자기소득이 없는 학생들이 부모에게서 2~3천 달러의 비용을타 갖고 나간다면 소기의목적을 거둘수있도록 알찬내용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白씨는 이어 『이들위해 우선 국제적으로 거의가 실시하고있는 학생할인제도의 실시가 시급한점을 비롯, 학생들의 해외여행을 총괄, 지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東大門區龍頭洞에 사는 학부형 金用學씨(48·東大門區龍頭洞)도 『대학3년생인 딸아이가 시집가는 돈을 미리 달라며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우겨 혼났다』고 말하고 『딸이 간다는데 말리고 싶지는 않으나 해외연수는 교육적인 여행이어야지 쇼핑이나 하고 이상한 곳을 구경하는 기회가 돼서는 결코 안될것』이라고 말했다.

金씨는 보통 미국은 2백만원, 유럽쪽은 3백만원가량 든다는데 그외에 별도의비용을 고려하면 실로 막대한 비용이 아닐수없다고 말하면서 『그돈을들여 다녀오는 학생과 그렇지못한 학생들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는점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난번 일본, 대만, 필리핀등을 돌고온 張모(22)군은 『같이간 친구들이 떠나기 전부터 부모와 친구의 부탁을 받고 대부분 쇼핑리스트를 미리갖고갔으며 이것들을 하나씩 챙겨 사는일이 가장 큰일』이었다면서 『현지에서 만난 우리유학생들에 부탁고 쇼핑안내를 부탁하는것은 정말 보기싫었다』고 말했다.

信用조합分店에 도둑
新亭4洞 電話걸어 經理사원 불러낸뒤

27일 낮12시께 서울江西區新亭4洞411의1 당산신용협동조합 新亭4洞분점에 도둑이들어 현금 2만여원을 털어 달아났다.

복수로보이는 범인중 한사람은 이날 분점과 같은 건물에있는 우정약국에 전화를걸어 혼자 협동조합을 지키고있던 경리사원 朴敬愛양(23)을 바꿔달라고해 불러낸뒤 朴양에게 이사장을 찾아오는 『조합가입자인데 대부를 받고싶다』는등 내용의 통화를 하며 5분가량 시간을 끄는 사이 공범이 빈사무실로들어가 책상서랍에 들어있던돈을 갖고 달아났다.

조합에는 평소 예치금과 대부금등 50여만원의 현금이 있었으나 이날은 토요일이라 오전에 업무를마쳐 2만원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ABC 提訴검토
統一敎, 追放보도에

【뉴욕26日UPI=聯】 統一敎는 26일 미국정부가 文鮮明목사를 국외추방하기위한 절차를 밟고있다는 美ABC방송의 보도가 『허위』라고 비난하는 한편 ABC방송에 명예훼손을 들어 5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ABC방송은 지난25일 美이민귀화국(INS)이 『영주권을 불법취득한 혐의로 文鮮明목사를 국외추방하기위한 절차를 밟고있다』고 보도했으며 INS대변인도 『文목사에대한 조사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있다』고 확인했으나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않았다.

工業用酸素를 病院에
業者9명立件 有害여부 감정의뢰

【大田=聯】 大田지검은 공업용산소를 의료용산소로 속여 2천6백여만원어치를 大田시내 병원에 팔아온 大田안전가스상사 申佳均씨(36·大田市 中區 宣化洞135의3)등 9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공업용산소를 의료용 산소처럼 속여 忠南大의대 부속병원등 大田시내 병원에 모두 1만6천여개(2천6백여만원)를 팔아온혐의이다.

한편 검찰은 이산소가 순도 99.5%에 1.6%가 미달하는 98%로 밝혀내고 함량부족이 인체에 유해한지의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民間 建築활동 회복늦어
올들어5.6%증가 公共77%늘어

정부예산사업의 早期집행으로 公共土木工事는 지난 4월에이어 5월에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民間건축활동은 여전히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27일 경제기획원이 대규모 7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건설공사 수주집계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총3천1백78억원에 이어 5월에도 3천3백1억원의 受注실적을 올려 금년들어 5월까지 累計는 1조2천6백82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6.6%가 늘었다.

그러나 이를 공사내용별로 작년동기와 비교하면 民間공사의 主宗인 건축은 48.9%나 줄었고 民間발주는 5.6%증가에 그친데 반해 公共부문은 77.2%, 이중 主宗인 土木은 88.4%가 늘었다.

韓·日航路運賃인상
荷主協선 反對표명

韓國荷主協會(회장 劉彰順)는 최근 韓日船主協會가 韓日간 항로운임을 오는8월1일부터 10.95%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온데 대해 현재로서는 인상요인이 없어 오히려 현행요율을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荷主協에따르면 현재 韓日航路運賃에 적용되고 있는 1.5%의 통화할증료(CAF)는 국내환율상승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써 할증료를 조정하면 기본운임의 인상요인은 상쇄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企業技術開發활발

27일로 발족 1개월을맞는 韓國技術開發(株)이 집계한 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 상담현황에 따르면 이날현재 대기업및 중소기업들은 1백2건의 기술개발프로젝트를 추진중에있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1백25억3천4백만원에 달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병실에 찾아오는 이동도서실은 날이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入院환자에 移動도서실
病室순회 貸出로 큰人氣
"정신 건강까지 되찾아"
직원들의 가톨릭봉사회서 冊모아

입원환자들을 위한 이동도서실이 생겼다. 건강에 대한 불안과 심리적인 고독,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무료히 보내야하는 환자들을 위해 서가모양의 손수레에 책을 가득히 꽂아 각병실을 방문하면서 원하는 책을 빌려주는 것이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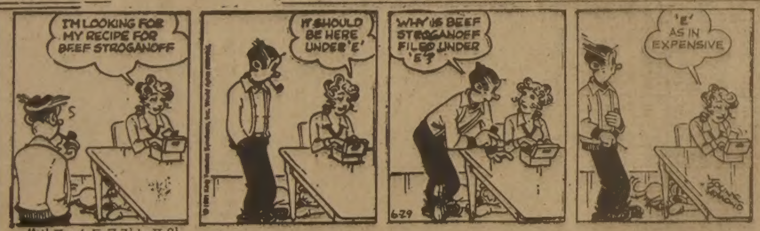
이 보던 책을 한두권씩 모으기 시작했고 나중엔 일반직원들도 교양서적 1권씩을 기증, 8백여권이 모아졌다. 장서라고 부르기엔 빈약하지만 종교서적과 문학서적 그리고 어린이환자들을 위한 동화책과 만화까지 갖추어 어엿한 도서관모습을 갖추게됐다.

이동도서관은 1백권을 간추려 병원사업과 직원 金惠麗양(18)이 손수레에 싣고 매일 오전10시부터 6층까지 4백여개의 병상을 찾는다. 金양이 병실문을 열면 환자들은 기다렸다는듯 『새로운 책이 있나』『무슨 재미있는 책이 없나』며 반갑게 맞는다.

한번에 2권씩 빌려주지만 다른 도서관처럼 반납에 제한된 시간이 있는것은 아니다. 환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가질것을 우려해서다.

[illegible]

선데이 스토리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

"비프·스트로거노프의 요리법을 찾고있어요" ※BEEF STROGANOFF:얇게썬 쇠고기·겨자, 양파로 요리한 음식。

"여기'E'자밑에 있어야맞는데…"

"왜 비프·스트로거노프가'E'자밑에 철이돼있지?"

"EXPENSIVE의 머리문자가'E'니까요"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아 세 아
건 재 약 방
선 물 센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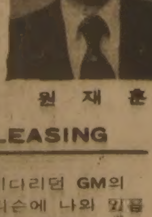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청심환을
대량직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저
하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北京同仁堂
牛黃淸心丸
大量入荷

BIG SEVEN TRADING CO.
878 BLOOR ST. W. TOR.
(고려식품옆)
☎: 530-0522.3
조지섭 · 김영철

서울행단체 매주출발
IATA
저렴한 요금의
●국내항공표일체 ●각종관광여행
●국제항공표 일체 ●각종 CREDIT카드 환영
컴퓨터 시스템으로 신속처리
신용과 경험과 책임성있는
여러분의 여행사!!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ONTO
(B)531-4607 (R)487-8088
성낙윤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전 북미주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GM의 신형모델 J2000가 에디슨에 나와 있읍니다. 각종외국 수입품보다 Engineering, Technology, Gas Mileage에서 월등하며 GM역사상 가장 센세이손널 J2000를 시운전 해보시고 북미의 미 새로운 Feeling을 체험해 보세요.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農協、9회말 劇的 역전勝

2死後 연속4安打로 浦鐵꺾어

6—5

실업야구리그

農協이 浦項製鐵에 기적의 역전승을 거두었다。農協은 27일 서울운동장에서 속행된 실업야구 후기1차리그 5일째 경기에서 9회말 2아웃까지 5—3으로 리드당해 패색이 짙었으나 대타 朴燦이 좌전안타로 돌파구를 열고 3번 洪熙擧의 좌익선상 결승 2루타에 이르기까지 연속 4안타 (포볼1개)로 李善熙를 두들겨 3득점、6—5로 역전승했다。

9회말 2死후에 2점의 열세를 뒤집은것은 금년들어 처음이다。지난해까지 農協 유니폼을 입고있다 浦鐵로 이적해간 李善熙는 지난 전기 2차리그서는 8안타를 맞고도 완봉승 (1—0)을 거두었으나 이날은 1점차로 패전투수가 됐다。

한편 전날 경기서 星武는 朴承昊 宋日奎등 두 좌타자가 5、7회말 각각 2점 홈런을 날리는 쾌타를 자랑、韓國電力을 6—0으로 완파했다。

이날 農協의 승리는 『야구는 2아웃부터』란말을 새삼 실감케했다。5—3으로 뒤진채 9회말 마지막공격에서 간단히 2아웃이된 農協은 거의 절망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때 2死후 대타로나선 朴燦이 좌전안타로 출루、이어 단신인 9번 金光洙가 포볼로나가 2死1、2루가 됐다。타순은 다시돌아 안경을 낀 1번 劉萬三이 볼카운트 2—2에서 우중간 적시타를 폭발시켜 5—4로 따라붙었으며 2번 崔聖甲도 날카로운 중전적시타를치고 루상에 나가자 3번 洪熙擧이 좌익선상을타고 구르는 적시2루타를때려 결승점을뽑아 農協은 연맹전서의 첫승리를 거두었다。

◇제5일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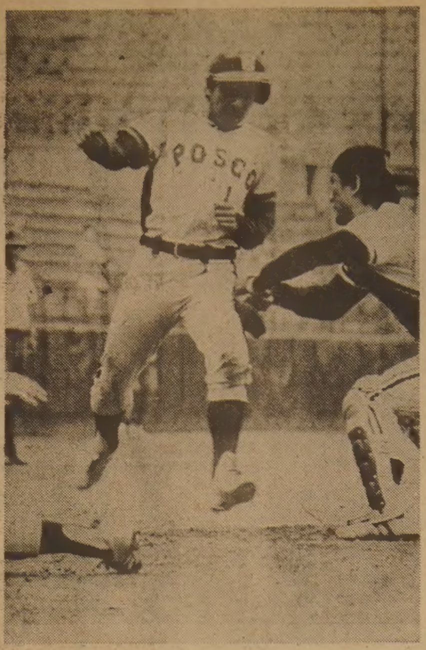
포항제철 (1승1패)	100	000	211	5
농협 (1승2패)	030	000	003	6

▲홈런=金承洙 (2회말3점·농협) 徐定鎬 (8회초·포철)

◇제4일 전적

한전 (1승2패)	000	000	000	0
성무 (1승1패)	000	220	20×	6

▲홈런=朴承昊 (5회말·2점) 宋日奎 (7회말 2점·이상성무)



◇홈으로 쇄도하다 태그아웃 (9회초 浦鐵 2死후 공격에서 金用熙의 좌전안타로 3루주자 大敏이 홈인하고 이어 2루에 있던 宋鎭浩도 홈으로 쇄도하다 아웃되고있다。

王貞治방문 中共 초청준비

【北京26日與=聯】中共의中·日우호협회 회장인 廖承志는 25일 中共은 일본프로야구계의 홈런王으로 지난해 은퇴한 王貞治가 中共을 방문할경우 그를 기꺼이 환영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中共이 王을 초청할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廖는 이날 人民大會堂에서 나까시마·시게오 日·中우호협회장부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2차대전전 자신이 日本에살때 와세다(早稻田) 게이오(慶應)양대학의 야구시합을 자주 보았으며 자신도 1루수로서 활약한바 있다고 회상했다。

22년간의 선수생활중 통산 868개의 홈런을 기록한 王은 은퇴、'巨人'팀의 현역선수에서 은퇴、현재 이팀의 조감독을 맡고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中國남부 浙江省출신이다。

프로복싱 新人王戰 결승

오늘 문화체육관서 거행

日刊스포츠와 MBC·TV가 공동기획한 프로복싱 81년도 전국 신인왕전 (前期) 10체급 결승전이 28일 하오5시 문화체육관서 열린다。

결승전은 6회전으로 진행되며 우수선수1명、장려신[illegible]

過熱스카웃 방지

野球協、선수등록규정 일부改正

대한야구협회는 26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야구선수의 과열 스카웃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등록 규정 일부를 개정、보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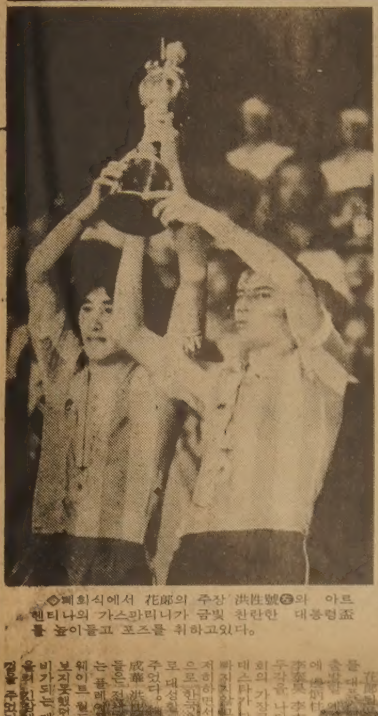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한 선수가 소속팀 및 부모의 동의서、학교장 추천서를 갖추어 다른 동일팀에 등록할경우 선수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으며 추천서를 2중으로 발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2년간 대회출전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그러나 같은 선수의 등록을 접수한 경우 대한 선수등록은 인정하되 본인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게되며 그중 추천서를 발행한 학교는 1년간 각종대회에 출전할수 없다。

또한 본인 이외의 다른 이름및 생년월일로 등록했을경우、진학을 위해 다시 학년을 낮추어 등록했을 경우 해당팀 (전년도에 이 선수를 등록한팀)은 2년간 출전자격이 정지되며 팀 감독및 코치도 2년이상 자격이 박탈된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花郞 공동優勝은 투지의成果다

제11회 大統領盃 국제축구결산



◇폐회식에서 花郞의 주장 洪性號(右)와 아르헨티나의 가스파리니가 금빛 찬란한 대통령盃를 높이들고 포즈를 취하고있다。

12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펼쳐진 제11회 대통령배국제축구대회는 한국의 花郞과 아르헨티나의 명문 프로팀인 라싱·데·코르도바가 공동우승을차지하고 26일 폐막됐다。

花郞은 기술면에서는 아르헨티나에 뒤지는감이 짙었으나 불같은 투지와패기로 완강히 밀어붙여 2—2로 비겨 스코어를 만들었다。아르헨티나의 기(技)를 기(氣)로 꺾은셈이다。

이트 월드컵예선실패로 우울했던 축구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花郞의 「밝은 미래」를 예고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花郞은 [illegible] 초순 멤버를 [illegible] 여 새롭게 [illegible] 이번대회 [illegible] 李泰昊 李太鎬 [illegible] 成華 [illegible] 李榮武 朴 [illegible] 노장급선수들은 전후반 안정감있는 플레이로 주었고 [illegible] 보지못했던 丁海遠이 고비가되는 게임에서 득점을 올려 [illegible] 을 주었다。

아르헨의 볼콘트롤 본받아야

邊炳柱발군…丁海遠 결정적 수훈

한국蹴球의 밝은미래를 예고

아르헨티나의 개인기량과 팀의 조직력은 참가12개팀가운데 최강으로 평가되었으나 결승전에서 보여준 그들의 플레이는 매너는 낙제점이었으며 이번대회의 옥의 티였다。

경기운영이 다소 감정적이고 매끄럽지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사건건 판정결과에 항의하는등 추태를보인 이면에는 동양심판을 깔보는 심리상태가 작용한 때문이 아닌가 분석된다。

이번대회를 통해 南美축구가 과시한 장점은 볼·컨트롤이었다。아르헨티나와 비교하여 花郞의열세가 두드러졌던 점은 볼·컨트롤(선수들이 볼을 지배하는능력)이었다。아르헨티나의 거의 모든 선수들이 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반면 花郞의 일부선수들은 볼을 지배하는것이 아니라 볼에 지배당해 1對1의 대결에서 밀렸다。

정지상태에서 천천히 굴러오는 볼을 기다려서 처리하는것은 쉽지만 상대선수와 나란히 뛰면서 처리하려면 고도의기술이 필요하며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더욱더 기술이 세련돼야 하는것이다。

花郞이 막강해지려면 볼·콘트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앞으로 이분야의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볼을 다루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金在國기자】

障碍者 배구규칙 새로制定

국내 스포츠사상 최초로

홀딩 적용안해

協會、小委구성…改正착수

네트 낮추고 서브라인 단축시켜 精薄兒

코트는 양탄자·매트…공속에 방울 視覺이상자

3人制도 공식채택…국교·중학速攻 금지

국내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배구에서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경기규칙이 만들어진다。또한 현행국·중교 배구룰이 대폭 개정되며 3명으로 경기를하는 미니·발리볼 룰이 국내에 공식 도입된다。이같은 혁신적 배구규칙 제정및개정 방안은 지난 19일 대한배구협회 이사회에서 결정됐으며 협회는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 활발한 작업을 펴나가고있다。

소위원회는 협회李康平 기획이사(漢陽大체육과교수)를 위원장으로、경기(曺英浩) 심판(朴勝洙) 기술지도(金光鎬)이사 洪良子(梨大교수(특수체육전공)및 국교연맹·중고연맹관계자들로 구성、오는 7월13일 이전에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로했다。

한편 李康平이사와 洪良子교수등은 이미 장애자에 적용키로한 룰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장애자에 대한 룰은 장애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홀딩·드리블·오버타임등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하지않으며 가벼우면서도 큰 볼을 사용하는것 등은 공통적이다。

우선 정박아들에대한 용품은 네트를 낮추고、네트로부터 서브라인을 가깝게하며 가능한한 많이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골자다。

사각장애자들은 코트바닥에 부드러운 양탄자나 매트를 깔고 볼 속에는 방울을 넣어 소리로 볼의 방향을 알리면서 토스대신 볼을 잡을수 있게 하고 약시자와 맹아를 적절히 섞어 선수를골고루 구성하여 경기를 하게 한다는것。흰선으로 되어있는 코트라인은 부드러운 천이나 천짚으로 사방을 치고 천에는 방울을 달아 방울소리에 따라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을 알린다。또한 청각장애자등 다른 부위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배구룰도 바로 사안안에 제정할 방침이다。

소위원회는 이외에도 국교및 중학교의 나어린 선수들이 지나친 기교와 고도의 콤비플레이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새로운 룰을 제정한다。국교 및 중학선수들은 신장과체중에서만 성인선수들에 못미칠뿐 실업선수들이 하는 AB퀵등 속공플레이를 그대로 모방하고있고 훈련시간마저 성인들과 비슷하다。이같은 풍토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부상선수가속출하고 장래있는 선수가 중간에서 배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이런 모순을 시정키위해 앞으로 국교및 중학대회서는 속공플레이를 시도하지 못하게하는 룰개정이 검토중이다。그러나 6인제 배구로는 이런 문제를 전면 개선할수 없다는 의견에따라 앞으로 3인제 배구를 도입키로 하자는 주장도 강력히대두됐다。

3인제 배구는 가로 12m、세로 4·5m의 코트(6인제 16×8m)를 사용하며 가로를2등분한 네트는 높이가 2m10cm로 6인제와같다。3인제의 경우 엔트리는 9~12명이나 코트에들어가 실제 플레이하는 선수는 3명。[illegible] 벤치로나가고 벤치에 있던 1명과 교대를 하게된다。이같은 3인제의 장점은 주전과 후보가 따로 없이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할수있어 어린이들에게 배구에대한 흥미를 심어주고 또한 명선수만 혹사하는 단점이 없어지는만큼 부상도 훨씬 줄어들게된다。

儆新승부차기로 이겨

中·高축구 慶熙·東亞·錦湖와 2回戰진출

慶熙高·東亞高·儆新高·錦湖高가 2회전에 올랐다。東亞高는 27일 효창운동장서 벌어진 제14회 대통령금배쟁탈 전국고교축구대회 1회전경기에서 전반28분 李錫柱가 선제골을 올린 다음 후반서 孔林植이 2골을 보태 栗谷高를 3—0으로 물리쳤다。

儆新高는 南山高와맞서 팽팽한 접전끝에 0—0무승부를 기록、승부차기서 3—2로 신승、2회전에 올랐다。

慶熙高는 高敎高와대결、전반6분 朴鍾大에게 골을 빼앗겨 1—0으로뒤지다가 3분뒤 朴基泰의 득점으로 1—1 타이를 만들고 후반서도 한골씩을 주고받아 2—2로 팽팽히 맞선끝에 경기종료 3분전 주장인 郭明錫이 결승골을 터뜨려 힘겹게 3—2로 역전승했다。

◇제3일전적

▲1회전

경희고	3	(2-1, 1-1)	2	고교고
동아고	3	(1-0, 2-0)	0	율곡고
경신고	0	(0-0, 0-0)	0	남산고
		(승부차기3—2)		
금호고	2	(1-0, 1-0)	1	상산고

윔블던테니스 중반

보리·코너즈등順調

【윔블던26日外=聯】총상금65만 달러의 윔블던테니스 선수권 대회는 26일 남자단식에서 비외른·보리、존·매켄로、지미·코너즈、여자단식에서는 크리스·에버트·로이드、트레이시·오스틴、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등 세계의 강호들이 모두 별다른 이변없이 상대를 제압하고 3회전을넘기고 16강겨루는 4회전에 진출했다。

이번대회 6연패를 노리는 보리는 이날 西獨의 롤프·게링을 6—4、7—5、6—0으로、美國의 노장스타 코너즈는 같은美國의 토니·기아말바를 6—4、6—4、6—0으로、전년도 준우승자인 매켄로는 美國의 봅·루치를 역시 6—4、6—2、6—0의 스트레이트게임으로 물리치고 준준결승문턱으로 한발 다가섰다。

首都·三千浦女 패권

男女 중학농구 각각 龍山·成德女 격파

제6회 협회장기쟁탈 전국남녀중학농구대회는 三千浦女中과 首都中이 첫 패권을 차지한 가운데 27일 장충체육관에서 폐막되었다。이날 남자부 결승서 首都中은 전반에 승부를 결정지은후 46—32로 龍山中에 낙승、우승했으며 여중결승서 三千浦女中은 成德女中에 47—35로 낙승했다。

成德女中은 [illegible] 우승을 차지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관점차는 벌리지 못했다。

◇최종일전적

▲남중

수도중	46	(22-24, 24-8)	32	용산중

▲여중

삼천포여중	47	(23-17, 24-18)	35	성덕여중

女代表 소속팀복귀

내달 實業排球戰서

배구협회는 27일 실업연맹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20일께 釜山서 열리는 제2차실업배구연맹전에 여자대표선수를 소속팀으로 출전하도록 허용키로했다。

배구협회는 당초 오는11월 日本서 열리는 제3회월드컵 여자배구본선에 대비, 지난5월부터 여자대표팀을 강화훈련에 묶어 각종국내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바있다。

崔上鎬 역전우승

오란씨 오픈골프

崔上鎬가 오란씨 오픈골프대회서 최종일 코스 레코드를 기록하는 분전으로 역전우승했다。關西컨트리서 27일 끝난 대회최종일경기에서 崔上鎬는 67타로 코스레코드를 기록 토틀 2백84타로 3라운드까지 선두였던 金學瓚을 4타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여자 프로부문서는 姜成順(안양)이 3백15타로 우승했고 한편 프로테스트 경기서는 金桂經이 2백96타로우승해 12명의 신사대상자가운데 金聖完이 2백93타로 유일하게 프로자격을 획득했다。

◇최종일기록=①崔上鎬(반포)284 (71·68·69·76) ②金學瓚(반포)288 (69·75·72·72) ③趙長相 288 (75·74·68·71) ④趙皓相(안양) 289 (72·75·70·72) [illegible]

한국일보

구독 신청서

Please enter my subscription

NAME ....

ADDRESS .... APT ......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 한국일보 1년 $90.00, 반년 $46.00
*주 1회 주간한국 무료제공 ☐ 1년
*주 6일 (매 8면) 발행, 신속우송 ☐ 반년

Office Use Only Sub Date ....

Mail this card today!

한국일보사에서는 독자들에 빠른 소식을 전해 드리고저 주2회씩 하던 신문정 배달을 주3회씩(월, 수, 금)오후에 하고 있읍니다.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週刊韓國 주간女性

신문판매처

고려식품	서울식품
동양식품	삼복식품
반도식품	한국관
한국식품(본점)	한국일보사
〃 (동부)	
써니식품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1981 Daily News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